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회개하며 무릎 꿇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2월 10일 (토) 제 1669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내 안의 죽은 가지 쳐내고 생명 준비한다!

### 2018년 사순절(2월14일-3월31일), 그 의미와 구체적 경건훈련 소개

아직 겨울이 물러가지 않고 얼음 밑에서 녹은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과수원은 가지치기로 일손이 바빠진다. 가지치기란 겨울 동안 죽은, 영양가 없는 가지를 과감히 잘라내 살아있는 가지들에게 생명을 모아주는 중요한 작업이다. 죽은 가지를 그대로 두면 살아서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의 가지까지 방해한다. 사순절은 봄이 오기 전 해빙기에 돌아오는 것에 이와 매우 유사한 상징성이 있다.

사순절은 한마디로, 생명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준비 기간이다. 내 안에 죽어있는 것, 영양가 없는 기억들을 과감히 잘라내 생명의 기운을 모으는 시기다. 내 안에서 생명이 돌아와 열매 중매는

것을 방해하는 묵은 겨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때가 바로 지금과 같은 사순절 기간이다.

사순절은 성회(聖灰)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날까지 46일간을 지키게 된다. 6번의 주일과 평일 40일간을 합한 46일이다(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있다면, '경건과 절제'다. 다시 말해서, '경건'과 '절제'로 내안에 죽어있는 가지들을 잘라내는 기간이다. 따라서 교회 전통으로서의 사순절은 경건훈련의 기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는 일, 그리고 금욕생활과 구제의 생활을 그 내용으로 한다.

사순절의 키워드는 절제와 경건에 있다. 다시 말해 이 기간 동안만은 음식조절, 말을 하기 보단 듣기를 더 하고, 돈과 시간을 아끼며, 분(忿怒)을 참을 줄 아는 절제에 대한 훈련을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의 의미는 사전적으로는 알맞게 자신을 조절하는 것이다. 사순절기에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경건행위는 금식이다. 음식에 대한 절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결심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내면의 성찰은 자신을 깨끗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기 위함이다. 이는 윤리학적으로는 방종하지 않도록 감성적 육구를 이성으로 통제하는 것이며, 기독교적 의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정결하여 우리의 행위를 알맞게 조절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가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고난주간 중 성금요일은 고난의 현장에서 세족식을 통해 섬김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고통의 현장, 아픔과 한탄의 소리가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기 때문이다. 찾아야 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도와 도움을 주는 절기가 돼야 한다.

그래서 이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지내는 절기가 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순절에는 신앙생활의 기본인 경건의 훈련을 연습해야 한다. 경건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나



2018년 사순절을 맞아 경건과 절제로 내 안에 있는 죽은 가지를 잘라내는 훈련을 다져야 한다.

는 '예배생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생활'이다. 물론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겠지만 사순절 기간에는 더욱 예배와 기도에 집중을 해야 한다. 그래야 경건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다.

인간은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해보지만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의 공통점은 인생을 마감하는 아쉬움이 짙게 배어 있고, 진한 허무와 체념이 묻어난다는 것이다. 사순절을 통해 실천해야 할 덕목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예수께서 당하신 수난을 생각하지 않고 부활을 바라볼 수는 없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금식, 이웃을 향한 선행과 용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이다.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사순절은 임으로 내세우거나 경건을 흉내내는 기간이 아니라 실천하는 기간이다. 사순절기간동안 마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만 용서 받아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 (3면으로 계속)

# 떠나는 밀레니엄 붙들 수 있다!

### Youngadultministrybook.com, 청소년사역 전문 스캇 폰티어 목사의 6가지 전략 소개

청소년 사역의 핵심과제는 무엇인가? 어떤 이들은 청소년들이 "교회 문턱을 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심지어 한 면접관이 "청소년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교리문답을 들을 때까지 만이라도 입 다물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은 적도 있다.

필자(Scott Pontier)는 청소년 사역은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에 이들을 참여하도록 평생 훈련시키는 것이라는 진영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사역이 우리의 청소년을 교회에 나오도록 독려하지 못한다면 정말 실패한 것이다. 우리 교회, 다른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를 포함한다(6 Key Strategies for Engaging Millennials).

"믿음연대운동(Sticky Faith initiative)"을 통해서 알게 된 최근 조사에서 본 것처럼 사역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다. 이는 무려 절반이나 되는 청소년들이 대학 입학 전에 믿음과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명 청소년 사역에서 "다리 건너기"라고 부르는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면 변화할 수도 있다. 청소년들을 교회에 안착시키고 교회 리더십으로 불러들이면, 18세에서 30세의 이런 답론은 변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을 교회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지난 세대의 믿음을 계승하기 바라다면, 18세에서 30세와 일하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좋은 소식이 있다! 대학생과 청소년 사역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가능하다. 사실 오늘날 18세에서 30세인 밀레니얼 세대(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

청소년, 청년 사역에 성공한 교회의 6가지 주요 방법

**방법 1: 리더십 개발**  
대학에 다니거나 20대의 중요한 지도자 중 반을 훈련시켜서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는 걸 돕도록 준비시킨다. 이 방법은 그럴듯한 교회 프로그램보다 실제적으로 더 청소년들에게 효과가 있다.

**방법 2: 관계**  
프로그램 개발이나 제자 훈련·예배 그 무엇이든지, 청소년, 청년과 관련된 모든 것은 관계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관계를 만들고 키우는데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방법 3: 신뢰성**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일명 '센서'가 있어서 까짜라고 느끼는 종교인이 다가올 때면 그 자리를 바로 뜬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p>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p> <p>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케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p>	<p>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p> <p>www.wmu.edu</p>
---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기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 346-0030 5 Binckhoff Terrace Palisades Park, NY 07650

샌프란시스코 347-952-5442 1-800-404-1171 E-mail: qospellmail@hotmail.com

 <p><b>시론</b> 은희근 목사</p> <p>2면</p>	 <p><b>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b> 손상용 목사</p> <p>7면</p>	 <p><b>리더십 코멘터리</b> 손동원 박사</p> <p>8면</p>	 <p><b>세계기독교인연합회 독후감</b> 임보라 사모</p> <p>16면</p>
--	---	---	---



#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 현수막 | 천막
-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 프로모션 상품
-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 21세기 전쟁, 총성 없이 트윗과 스냅사진으로 생중계!

## 뉴스위크, 베테랑 중군기자 데이빗 파트리카라코스, SNS 통해 벌어지는 새로운 전쟁 양상 소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21세기 전쟁을 어떻게 바꾸고 있다. 한마디로, '140자'의 총성 없는 전쟁이 온라인상에서 전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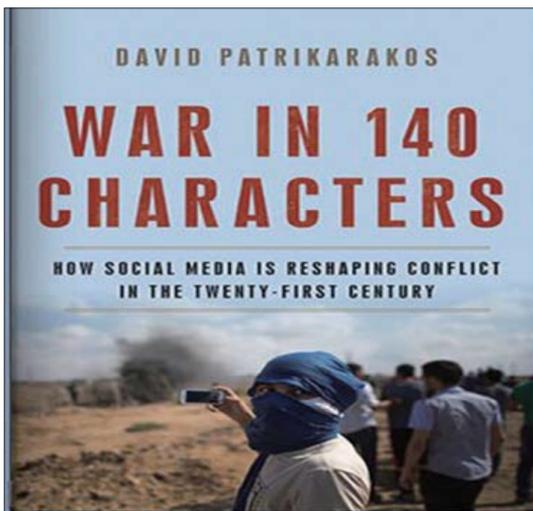
베테랑 중군기자로 유명한 데이빗 파트리카라코스(David Patrikarakos)는 최근 신간 "140자로 치르는 전쟁: 소셜미디어가 바꾼 21세기의 전쟁(War in 140 Characters: How Social Media

Is Reshaping Conflict in the Twenty-First Century)"을 통해, 지구촌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신중하고 사려 깊게 소개한다. 이 책은 현재와 과거의 전쟁 이론을 다루지만 저자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인물 위주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간다(SOCIAL MEDIA AND WAR: HOW FACEBOOK AND TWITTER ARE RESHAPING CONFLICT IN THE TWENTY-FIRST CENTURY).

먼저 그가 소개해주는 사례들을 살펴보자.

페이스북은 2016년 미국 대선을 전후해 이른바 '맷글 농장(troll farm)'으로 불리는 러시아 정부 연관 단체 인터넷리서치에 이진시(IRA)를 통해 약 3000건의 광고가 집행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불만을 가진 전직 IRA 직원의 폭로로 밝혀진 사실이었다. 그는 "그 일을 하는 자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저 비열한 인간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페이스북 전사'는 연료부터 과일까지 모든 것을 SNS를 통해 구한다. "무엇보다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사람들은 누구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웹 2.0은 전쟁 2.0의 시발점이다. 십대 소녀가 트위터로 전투를 생중계함으로써 한 국가 전체를 쫓아다니게 만들 수 있는 세계다. IS가 유프라테스 강에서 배를 탄 젊은이들의 사진으로 감수성 예민한 여성을 유혹해 성전 전사로 전쟁터에 나서도록 만들 수 있는 세상이다.

1만여 개에 이르는 페이스북 피드를 통해 쏟아지는 정보와 가짜뉴스는 양도 어마어마하지만 영향력도 매우 크다. 전통적인 전시 선전은 '적대 세력'을 표적으로 삼았지만 요즘 러시아의 크림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방위군,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IS 등 국가 당국이나 무장조직이 감행하는 소셜미디어 공격은 전

## 웹2.0은 전쟁2.0의 시발점...여성, 어린이가 무대중앙 차지 소셜미디어 전쟁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스토리가 성패 좌우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알고 있다."

시리아 라카를 '수도'로 삼았던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는 온라인 메신저 왓츠앱(WhatsApp)과 바이버(Viber)를 통해 프랑크인을 대원으로 포섭했다. "신문에 보도되는 것은 믿지 마라. 여기서 모든 무슬림이 평화롭게 산다. 여기서 우리가 진실된 뜻을 이뤄간다."

한 젊은 팔레스타인 여성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이 치열한 와중에 이런 트윗을 올렸다. "폭탄 터지는 소리를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울부짖는다. 청각을 잃을 지경이다."

파트리카라코스가 인용한 사례들은 배경과 지역이 각각 다르지만 그들 전부는 그가 '호모 디지털리스(homo digitalis)'라고 부르는 새로운 부류의 인간을 상징한다. "고도로 네트워크화한 개인은 특히 이원론적이다. 세상을 선과 악, 자기 편 아니면 적으로 본다. 소셜미디어의 핵심에 위치한 네트워크는 구심력과

원심력 둘 다를 갖는다. 이전엔 불가능했던 속도와 규모로 사람들을 한데 모으기도 하고 뿔뿔이 흩어놓기도 한다."

파트리카라코스는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페이스북의 인구는 중국보다 많으며,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미국인에게 대부분의 뉴스를 제공하는 주된 플랫폼이다.

베테랑 해외 특파원인 파트리카라코스는 2014년 봄 우크라이나 동부에 도착해 "트위터가 뉴욕타임스나 NBC보다 더 최신 정보를 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해 여름은 전쟁과 소셜미디어에서 매우 중대한 시점이었다. IS가 그해 6월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점령한 뒤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한 달 뒤 이스라엘은 '방어의 칼날(Operation Protective Edge)' 작전을 개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 십대 소년 3명

을 납치 살해한 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어린이 한 명을 보복 납치 살해한 사건 등 여러 차례의 국지 도발에 이어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대규모 전투였다.

요즘 전쟁은 예전과 달리 두 전선에서 치러진다. 하나는 탱크와 대포를 동원하는 지상의 전선이고, 다른 하나는 트윗과 스냅 사진을 동원하는 소셜미디어 전선이다. 더구나 그중에서도 으뜸은 '스토리텔링'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각목과 돌맹이가 뼈를 부러뜨리는 동안 '스토리'가 전쟁을 승리 또는 패배로 이끌 수 있다.

세계를 대상으로 펼쳐진다.

이 영역에선 누구나 전쟁의 행위자가 될 수 있다. 파트리카라코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다른 8명의 주요 인물 중에서 4명이 여성이고 3명이 민간인인 사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여성과 어린이 등 역사적으로 전쟁에서 제외된 계층이 이제는 무대의 중앙을 차지하고 이전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 전쟁 무대를 이끌어갈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 시론

### 영적인 일에 분주하게!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일반 국민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 쇼핑을 하는 나라, 도로 위에 탐보르기니와 포르쉐가 즐비한 나라, 전 국민에게 매년 1억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나라, 주거, 교육, 의료비가 모두 공짜인 나라,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 이 나라는 오세아니아나 미크로네시아에 위치한 '나우루 공화국'. 인구 1만 명 정도에 울릉도의 1/3 크기의 작은 섬나라는 '인광석'이라는 희귀자원이 풍족한 섬이라 1980년에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가는 부자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된 계기는 섬에 지천으로 널린 새똥 때문이었습니다.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였던 이 섬에 오랜 세월 쌓인 새똥의 똥은 산호초와 배합되어 '인광석'이 되었습니다. 나우루 공화국은 '인광석'으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돈을 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합니다. 덕분에 나우루 공화국 국민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소비하는 생활만 하게 되었습니다. '인광석'을 채굴하는 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와 일하게 하고, 모든 가정에는 가정부와 집사를 고용해 편하게 생활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들까지도 외국인들로 고용했다고 합니다. 국민이나 정부나 남는 게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로 30년이 지나자 나우루 공화국 사람들은 집안 청소하는 방법도, 요리하는 법도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섬나라 나우루엔 어선이 사라졌고, 전통문화가 없어졌으며,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먹고 놀고 여행하는 습관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우루 공화국 사람들은 결국 80%가 비만에 시달렸고, 비만율, 당뇨병 사망률 1위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광석'의 채굴량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나우루 공화국의 인광석 또한 2003년에 결국 고갈되었습니다. 가난해진 나우루 공화국 국민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청소하는 법, 요리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고,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놓고먹던 국민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일하는 즐거움을 잊어버린 그들에게는 나태함과 무기력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번만 아니라 나우루 공화국은 존재 자체를 위협받기 시작하는데, 무리하게 '인광석'을 얻으려 땅을 파헤쳤기에 섬의 고도가 낮아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만약 수면이 높아질 경우 섬이 통째로 가라앉을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바다 건너 먼 나라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풍족함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나우루 공화국 사람들처럼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인터넷에서 퍼온 글).

나우루 공화국 이야기는 "현재의 풍족함에 만족하며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오늘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너무나 하는 일들이 잘되어 이제 창고도 모자랍니다. 창고를 몇 개 더 짓습니다. 늘 오다가다 바라만 봐도, 홀로 눈감고 생각만 해도 너무나 흐뭇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일에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한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복음 12:20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가 어느 때이든, 또 무엇을 하고 있었던 전혀 상관없이, 인생의 모든 것은 그 즉시로 하나도 남김없이 예외 없이 그냥 끝나고 맙니다. 갈 때는 그 어떤 것도 쥐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애지중지 여기고 흐뭇했던 모든 것들을, 창고 몇 개를 더 지어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이때 즉 인생이 끝나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라는 물음이십니다.

그래도 나는 세상에서 잘 살고, 좋은 평가 받고, 사람들에게 인심 잃지 않고 살았는데 그러면 뭘지 아니한가? 라는 생각과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다음 질문을 던지십니다. "과연 그렇다면 인생이 인생으로만 끝나는 줄 아느냐?"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인생"-사람이 사는 생명-이 끝나면, "영생"-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인생의 정의는 분명해집니다. 인생(생명, 잘라, 순간)은 하나님 나라(구원과 영생)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인생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천국과 영생을 준비하라고 주신 마지막 기회이자 은총의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8년을 자기만족에 허비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들로 채워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영적인 일에 더욱더 힘쓰고 분주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pastor.eun@gmail.com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강사: 라흥재 목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내 안의 죽은 가지 쳐내고 생명 준비한다.

(1면에서 계속)

결국 사순절을 지키는 목적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경건훈련을 통해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뜻이다.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진정한 회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삶'을 회개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삶에서 거짓과 손을 잡고 죄를 범하게 된다. 모든 죄는 거짓말과 거짓된 언행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할지라도 아버지를 어렵게 생각하고 겁을 낼 줄 알아야 가정의 질서가 확립된다. 왜 부모를 겁내야 하는가? 항상 겁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때 겁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마음의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경외란 말은 존경하면서도 두려워 한다는 말이다.

금년 사순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팬(fan)이 아니라 그의 참다운 제자가 되는 길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공부하며 그것을 노트에 적어 보관해두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다. 팬은 잠시 환호하다가 사라지지만, 제자는 바울처럼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사도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다(빌3:8).

결론으로, 사순절은 봄을 준비하는 희망에 찬 시기가 돼야 한다. 사순절은 생명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준비이다. 내 안에 죽어있는 것, 영양가 없는 기력들을 과감히 잘라내어 생명의 기운을 모으는 시기이다. 내 안에서 생명이 돌아나 열매 맺는 걸 방해하는 묵은 겨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때가 바로 지금과 같은 사순절이다. 따라서 내 마음 안의 죽고 어두운 겨울의 죽은 가지를 어떻게 쳐내야 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한마디로,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묘한 습관이 있다. 힘들다고 하면서도 묵은 상처, 어둠에 집착하려 한다. 일중에 어두운 습관에 대한 익숙함이라 할까. 그래서 싫으면서도, 버려야 하는 줄 알면서도 미련을 갖는다. 미련 없이 과감히 나의 지난 어둠의 가지를 잘라버리려는 단호한 결심이 있다면 그럴 수 있는 힘은 은혜로 주어지게 된다. 어둠이 빛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당장 죽은 가지들을 쳐내자! 하루에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것만큼 성경을 읽고 기도하자! 경건은 모양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경건이 습관이 돼야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

(편집부)

## 채플린 임상목회 (13)

### 텍사스에서 채플린 사역을 계속합니다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 병원 채플린)

약 25년간의 목회생활을 완전히 은퇴하고, 정든 캘리포니아와 성도들, 병원의 동료 채플린 친구들을 떠나 텍사스 달라스 지역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곧 부모가 되는 큰 아들 내외의 간곡한 부탁에 차마 거절을 못하고 결심을 한 후, 두 달여 간의 준비 끝에 아내와 함께 마지막 이사가 될지도 모르는 조금은 벅찬 도전을 감행하였습니다.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자녀들의 도움 없이 타 주로 이사하는 일은 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 피로와 중압감은 가히 감당하기 힘든 정도였습니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음에도 체력이 바닥나고 계획된 일정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독감과 몸살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오래 살던 주택을 판매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일들이 결코 수월하지 않았습다. 특히 신학교 때부터 목회자 생활을 하며 구입한 수 천 권의 책들과 자료들을 갖고 장거리 이사할 수도 없었고, 오래 전부터 좋은 곳이나 좋은 후배 목회자에게 물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도서들과 자료를, 설교 테이프/CD, 주석들을 다시 정리하고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가까이에 놓고 다시 읽고 싶은 책 100권만을 빼어 놓고, 나머지 모두를 주위에 있는 목회자와 신학교 도서관, 기도원 등에 책장까지 기증을 하였습니다.

36년 전에 빈손으로 처음 미국에 유학을 왔던 때를 기억하며 아내와 함께 의논한 결과,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든 가구와 살림살이를 나눠드리고 떠나기로 결정을 하니 마음이 홀가분하였습니다. 자녀들이 오히려 반대를 하였습니다. 이곳에 와도 가구들이 다 필요하니 그대로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집 가구들을 먼저 꼭 필요한 어려운 교육들에게 전하고, 나머지 가구들과 옷가지, 부엌살림들을 5년전 개척했던 부탄 난민 교회의 교육들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하였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되는 난민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 쓰겠다고, 트럭까지 빌려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용하던 물건까지 소중하게 쓰임 받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달라스에 와서 교회에서 만난 자매와 결혼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난해에는 영아원 회중에서 처음으로 안수집사 장립을 받은 큰 아들과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큰 며느리와 곧 태어날 첫 손자를 만날 기쁨에 힘든 줄도 모르고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로교 목사출신의 채플린을 찾고 있던 중형 종합병원으로 저를 인도해주셨고, 달라스 지역에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권 주민 환자들과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예비해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살 아담한 타운하우스도 병원과 아들 집 근처에 마련해주신 세밀한 손길에 더욱 감사를 드렸습니다. 은퇴한 부부들이 주로 많이 사는 조용한 이웃 분들이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었고 고관절 수술을 두 번이나 받은 한 백인 노부부는 기도를 부탁하며 휠체어에 앉은 채 오래 하 그까지 하였습니다. 이곳에도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외로운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주님은 이 노종을 아직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새로운 임지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중,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조금이라도 살 속에서 전할 수 있는 종으로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tdspark@gmail.com

## 떠나는 밀레니엄 붙들 수 있다!

(1면에서 계속)

이들이 구하는 것은 예배나 설교, 정통의 핵심 가치가 아니라, 교회가 이런 가치를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자신의 전부를 바칠 수 있고 자신을 수용할 만한 곳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도 거짓으로 꾸며야 하는가를 생각한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뢰성을 키우는데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방법 4: 깊이

믿거나 말거나, 청소년들은 믿음의 얇은 물에서 수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믿음의 핵심 가치에 관련된 사람들을 찾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보물창고 찾기 프로그램이나 피자 파티보다 청소년에게 전해줄 수 있는 영적인 깊이를 의식적으로 더 깊게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교회에서 성인을 위한 '무거운 주제'를 찾고 있거나 청소년들이 믿음의 심연에 들어가도록 돕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방법 5: 행동하는 소명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은 활동적으로 보이는 믿음을 원한다. 예를 들면, 깨끗한 물을 제 3세계에 공급하는 운동이나, 인권 운동, 인신매매 근절 운동과 같은 것이다. 그 세대를 행동하도록 한다면, 청소년, 청년을 교회에 안착시킬 수 있다.

방법 6: 의미 있는 기부

청소년들이 인생과 교회 리더십에 의미 있게 헌신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데, 단순히 한 달에 한번 교회에 나오도록 한다면 우리는 이들을 잃을 것이다. 사역 현장에서 이들이 뭔가 만들어내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이들을 교회에 안착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며 이들이 이전 세대와 다음 인생 세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토대를 마련해 청소년들을 위한 방법을 찾는다면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청소년들이 성인이 될 때, 더 오래 교회에 정착하게 할 수 있다.

## 21세기 전쟁, 총성 없이 트윗과 스냅사진으로 생중계

(2면에서 계속)

위계질서가 확실한 전통적인 뉴스 매체의 패권은 거의 사라졌다. 이제 그런 기관은 개인으로 대체됐다. 또 팩트는 '스토리'로, 토론은 감정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알고리즘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세계를 어떻게 보는지 결정한다. 소셜미디어는 사적이고 은밀하다. 유희하고 회피하며 꼬드기고 허위를 믿게 한다. 조작된 영상과 거짓말이 넘쳐난다. 그곳에선 음모론이 번성하며 널리 퍼진다.



파트리카라코스는 이런 변화의 결과가 영향력을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악의를 가진 행위자는 우리 모두가 방

송인 또는 모금자 또는 선전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호모 디지털리스는 최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무기로 활용된다."

요즘 같은 탈진실의 세계는 탈진실의 지도자도 만들어냈다고 파트리카라코스는 지적한다. 블라디

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이들 새로운 지도자의 목표는 "예전의 정치인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진실이 존재한다는 개념 자체를 뒤엎는 것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정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라고 외친다. 다른 시대 같으면 그런 헛소리는 지금처럼 잘 먹혀들 수 없다.

전쟁과 포퓰리즘, 반세계화 정서의 현 주세를 지켜보는 목격자로서 파트리카라코스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중동 전역에서 거의 한 세기만에 겪는 전쟁과 불안의 공습으로 좌절된 사람들과 기회주의적인 선동가들이 전 세계를 불태울 수 있는 가연성 혼합물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파트리카라코스는 재앙 예언가는 아니다. 호모 디지털리스의 어둠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21세기 종군기자'라는 빛에 의해 조금씩 밝아질 수 있다. 소셜미디어라는 도구는 기만만이 아니라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www.rptseast.org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학과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 축복속에 행복하게

금세기 한 유대인 철학자를 통해서 진지하게 인성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 책 하나가 있다. 바로 유대인 철학자인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이다. 그 저자는 인생에 있어서 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인격에 대해서 논했다. 심지어 신앙도 나와 영원자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는 말한다. 관계 하에서만 우리의 인격은 빛어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내가 이웃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나의 인격의 연단이 이루어져 간다. 내가 이웃을 그냥 이용만 하고 차버릴 때, 이웃은 나에게 있어서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전락한다고 마틴 부버는 말한다. 탈무드는 이런 흥미 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왔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간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여행을 하라"고. 여행 떠나서 일주일이나 지내면 집에 오고 싶지 않은가? "한 달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새 집으로 이사를 가라." 새 집의 감격은 한 달을 남길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 해 동안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결혼을 하라"고. 허니문의 감동은 일 년 이상을 남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탈무드의 절정은 바로 이것이다. "일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이웃을 섬기라"고 그렇다. 복! 축복, 행복은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사람들이 이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옛날 우리 조상들은 대문에도 이불에도 베개 밑에도 복 복자를 써놓고 살았다. 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일까? 아니면 하늘에서 소낙비가 떨어지듯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노만 빈센트 필(Norman Vincent Peal) 목사님은 소위 '적극적인 사고방식(Power of positive thinking)'의 화두를 던져서 우리 시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분이다. 이분이 한번은 기차 여행을 가면서 식당에 있는 열차 칸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런데 바로 건너편에 한 초로의 부부가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평하는데 그 소리가 건너편에 앉아있는 필 박사의 귀에도 다 들렸다. "이거 야채가 왜 이래? 고기는 너무 질긴 것 같고, 포도도 너무 신 것 아니야? 이 열차의 온도는 너무나 맞지 않는다. 날씨도 안 좋고 여보 우리 괜히 여행 나온 것 아니야? 금년에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모르겠네."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 부인의 소리가 이어진 것이다. 부인 곁에 앉아 있던 남편이 필 박사에게 먼저 얘기를 걸어왔다. "선생님! 참 죄송합니다. 이해해주시시오. 제 아내가 본래 직업이 그렇습니다." 직업이 그렇다는 말에 필 박사의 호기심이 발동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부인의 직업이 무엇하는 일인데요?" 그러자 이 남편은 다시 "예, 제 아내요? 제 직업에 종사하고 있죠." 그러자 다시 필 박사가 물었다고 한다. "무엇을 제조하시는데요?" 그러자 이 남편이 "아! 제 아내 불행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스스로 불행을 만들면서 살고 있지요." 불행을 만드는 사람-이 단어가 어떤 느낌을 주는가? 만약 불행을 만드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반대로 행복을 만드는 사람도 존재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은 불행을 만들며 살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을 만들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은 불행 메이커인가? 아니면 행복 메이커 Happiness maker인가? 마태복음 5장 1-12절을 팔복이라 부르기도 있다. 이 팔복이 가르치는 첫 번째 행복한 인생의 열쇠는 행복한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

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말 번역에 이 팔복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혹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라고 되어 있다. 희랍어로 '마카리오스' 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 이 단어를 영어성경에서는 blessed 라는 단어로 번역했다. 그런데 여기 행복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happiness 혹은 행복으로 happy라는 단어이다. 그런데 성경에 사용되는 단어는 happiness가 아니라 blessing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happiness란 단어는 happen이라는 동사에서부터 유래한 단어이다. 그런데 이 happen이라는 것은 우연히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행복이 그렇게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라면 행복은 어떤 우연의 결과라고 밖에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단어를 쓰지 않는다. happiness가 아니라 blessing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의미대로

사람들은 God Bless you! 라고 하는 것이다. 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볼 때 발견하는 사람이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죄를 느끼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가치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다. 혹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합당하게 자신을 드리고 있는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복음의 정신을 전파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사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복이 있다'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행복의 열쇠는 단순한 행복한 인생의 처세술을 익히는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다. 그 관계가 바로 회복될 때 인생의 행복과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revpetergang@hotmail.com

### 푸/른/초/장

김주동 목사  
(뉴욕온누리성결교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날이 추운 겨울날 한 청년이 점퍼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단추와 단추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오토바이를 잠시 세워놓은 청년은 단추가 등 뒤로 가도록 옷을 돌려 입고 흐뭇함에 콧노래를 부르며 달리다가, 그만 마주 오는 버스를 피하지 못하고 눈두렁으로 쳐 박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버스의 승객들이 내려서 청년을 구하려고 보니 숨은 쉬는데 목이 그만 돌아가 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911에 신고를 해놓고 응급조치차원에서 목을 제대로 돌려놓으려고 하는데 생각대로 잘 안 돌아갔습니다. 승객들 가운데 힘센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결국 목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이어서 앰블런스가 와서 병원에 실고 갔지만 청년은 죽고 말았습니다. 옷을 돌려 입은 것이 목이 돌아간 것으로 오해를 해서 사람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오해는 이처럼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오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오해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멨를 함께 메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싸우며 주님의 살을 다시 찢어 내는 마귀장단에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사이도, 백년을 함께 가지고 약속한 부부사이도 이 오해는 너그러게 틈과 벽을 만들어 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해하고 있을 당시에는 진

실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고린도교회에도 성도들 사이에, 또 성도와 사도바울 사이에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매 맞고 갇히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수고를 감수했다고 했습니다. 육신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복음으로 낳은 자식들이어서 오해 속에 무너져가는 고린도교회와 영혼을 다시 세우려고 편지를 쓰고, 동역자를 파송하고, 방문하지만 오해의 폭을 좁

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오해 속에 발걸음을 돌려 예배소에 돌아오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야 고린도 후서를 통해 오해로 인해서 벌어진 틈과 상처를 위로와 권면으로 매우게 됩니다. 대부분의 오해는 성경의 생각이 아닌 인간적인 타산, 자존심, 명예와 권력을 염두에 둔 육체적인 생각에서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런 오해의 원인을 고린도후서 1장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

고린도에는 온다고 했다가 연기하고 왜, 말을 자주 바꿀까? 저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종일까? 이러 후서를 통해 사도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또다시 해명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일까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 21절에서 부연하듯이 바울의 인격과 사도권이 무너지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

말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어리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릴수록 그리고 육신적인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행형사정을 고려하여 생각하기보다는 언제나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 생각합니다. 고린도교회는 어린교회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복음으로 살기보다는 육체의 지혜에 종이 되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분쟁과 분파로 땅을 지어 지식과 은사를 자랑하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할 정도로 음란했고,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세상법정에 송사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적당히 겸하여 섬기고, 부활의 소망의 확신 없이 오늘날을 위해 살고, 성장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지체됨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신과 오해 속에 성숙함이 없는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완전하게 알기 원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7면으로 계속>

## 오 해

### (고린도후서 1장 12-18절)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8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 2018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18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종교인으로서는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를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고시 일자: 2018년 5월 18(금) - 21(월)  
2) 고시 장소: Old Westbury, New York, USA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1) 필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이상4과목)  
2)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 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 주해 - 시편 110:1-7  
(2) 신약 주해 - 로마서 4:17-25  
(3) 논문 제목 - 개혁주의 관점에서 톨라이트의 뉴 퍼스펙티브를 평가하라.  
(4) 설교본문 - 누가복음 16:19-31  
①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것.  
② 고시 기간 중 설교실고시를 치를 것.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자에게 이메일 할 것.  
③ 레터 (8-1/2" x 11") 폰트를 사용 할 것.  
④ 한글 11호 크기의 폰트 사용, 줄 간격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호 Double Space)  
⑤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필자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매 정도).  
⑥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 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 할 것.  
⑦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이름에 본인이름 및 과목 주제 이름을 사용 할 것. (예: JohnJhoOTExegesisPaper.pdf)  
⑧ 파일이 너무 크면 나누어서 이메일로 보낼 것.  
3) 면접 고시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8년 6월 이전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4)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6) 명함판 사진 2장  
7) 고시료: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PCPNY (재시할 \$100)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8년 3월31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합격자 발표는 42회 총회기간(5월22일-25일) 중에 합격서류 수여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1)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2)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3.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화면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조용철 목사(Rev. John E. Jho) / Email: drjho@hotmail.com or jhothoben@gmail.com  
주소: 6554 W. Desert Inn Road Las Vegas, NV 89146 U.S.A. / 전화: (702) 296-9193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고시부 부장: 조성훈 목사 (718) 986-8442, kfpcny@gmail.com  
2) 고시부 서기: 조용철 목사 (702) 579-7576, drjho@hotmail.com  
3) 고시부 회계: 한재현 목사 (831) 9207043, jhanrev@gmail.com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 하이라이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상원과 하원 합동국회와 전국 국정(State of Union) 첫 연설에서 미국이 회복할 가치관과 지난 1년간 이루어 놓은 중대한 진전을 설명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미국을 모든 미국인에게 "Make America Again"으로 만들기 위해 날마다 분명한 비전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전하며, 미국인들은 그 누구보다 가장 용감하고 대담한 시민들이라고 칭찬하며 첫 번째 국정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 행정부가 그동안 국가적으로 성취한 진전에 대해 언급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경제**  
대선 이후 24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임금이 인상했고, 실업률이 45년 만에 가장 낮고, 흑인과 남미 미국인들이 인정할 만큼 그들의 실업률도 최저로 떨어졌고, 중소기업 신뢰도는 최고로 올라갔고, 증권시장은 계속 기록을 깨고 있는 중이며 8조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바로 우리의 새로운 미국의 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며 자신을 믿고 미국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든 꿈꿀 수 있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애국심과 그 중요성 언급**  
"우리가 모두 같은 미국국기를 갖고 있다"고 하며 자신은 미국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존중하기에 국가에 대한 맹세를 할 때 손을 가슴에 얹고 애국가를 위해 자랑스럽게 일어선다고 말하며, 약속대로 미국의 참전 용사들을 계속 존중하며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신앙이 기초된 나라임을 재확인시킴**  
"미국은 원래 정부와 관료주의가 아닌 신앙과 가치가 삶의 중심인 나라입니다. 우리의 모토는 'In God We Trust'입니다" 라고 말하며 가장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을 위한 헌신한 시민 영웅들 칭송**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

에서 많은 시민 영웅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대신 언급하며, 그들의 애국심과 헌신, 그리고 슬픔을 딛고 일어난 자들의 용기를 칭송했습니다.

**탈북인 하이라이트 됨**  
특별히 자유를 찾기 위해 목발을 짚고 수천 마일을 걸어 탈북한 지성호 씨를 소개하며 지성호씨가 자유를 찾기까지 심하게 고생한 것들을



이야기해주며 그의 용기와 끈기를 칭찬했습니다.

**그 외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정책 정리내용**

**△미국의 에너지 전쟁과 깨끗한 석탄 전쟁을 끝냈으며 여러 해 동안 미국을 떠났었던 회사와 일자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함.**

**△올해 우선순위 중 하나가 처방 약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며, 제약 회사들의 독점으로 터무니없이 비싸게 된 약들을 무명 상표로 가격을 낮추겠다고 함.**

**△그동안 미국이 상대국들에게 보였던 경제적 약화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하며 앞으로 공정한 상호 무역 관계를 통하여 미국 노동자들과 지적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함.**

**△붕괴하고 있는 미국의 infrastructure를 재구축해야 할 때라고 하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미국 경제에 필요한 안전하고 빠르고 신뢰할 수 있고 현대적인 기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요구하며, 미국인의 마켓강조.**

**△불법 이민으로 들어온 경단과 범죄자들이 국경을 넘어와 시민들**

을 죽이는 치명적인 여우구멍을 닫고 국경 경찰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협력하여 모든 배경과 색깔과 종교와 신념의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라고 요구함.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민 제도를 구축하는 동시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타협점을 대표하는 네 가지 사항의 계획 언급함;**

**첫째, 180만 명의 불법 미성년 이**

로 인정하기로 했는데,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미국을 반대한 국가들이 있기에 국회에 요구하기를 미국의 원조와 지원은 미국의 친구인 나라들에게만 주라고 함.

**△이러한 북한의 압제 정권들에 대해서 언급하며 미국은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이란 국민들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북한의 핵미사일의 무분별한 추적을 막기 위해 최대 압력을 가하겠다고 함.**

**△대통령은 또한 청중들에게 미국인의 꿈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긍지를 가지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우리의 가치를 신뢰하고 우리의 시민을 신뢰하며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면 실패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은 번창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번영할 것이며 우리 나라는 영원히 안전하고 강하고 자랑스러우며 자유로울 것이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America!"로 마쳤습니다.

**짧은 1년 동안 미국이 기적적으로 많이 회복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 연설은 미국을 사랑하고 열심히 사는 미국인들을 연합하며 소망을 주는 연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초청한 모든 인종과 배경을 뛰어넘은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는 깊은 감동과 소망을 주었다는 의견이 많으나 물론, 정반대로 증오와 미움으로 계속 트집 잡는 무리들도 있기에 미국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남쪽 국경에 벽을 설치하고 불법 위험범죄자들을 잠깐 풀어 주지 않을 것.**

**셋째, 불법 이민자의 안전성과 기술과는 관계없이 무작위로 배포하는 비자 복권 프로그램을 없애며**

**넷째, 스폰서 이민은 핵가족에만 해당하고 연쇄 이민은 중단.**

**△매일 174명의 마약 과다 복용의 죽음에 대한 재앙을 막기 위해 마약상들에 대해 훨씬 더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

**△이슬람 테러 조직 ISIS를 제거하기 위한 연합군이 이라크와 시리아 있는 영역에서 거의 98% 진압시켰고 그들이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전투를 계속하겠다고 함.**

**△민중당에서는 테러범 수용소 관타나모를 없애기를 원하지만 없애지 않을 것이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이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새로운 교전 수칙을 통해 더는 우리의 적들에게 이전(오바마) 정부가 했듯이 우리 계획을 알리지 않겠다고 함.**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

로 인정하기로 했는데,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미국을 반대한 국가들이 있기에 국회에 요구하기를 미국의 원조와 지원은 미국의 친구인 나라들에게만 주라고 함.

#### 결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삶 가운데서 평범하게 함께 살고 있는 영웅들을 칭찬하면서 그의 연설을 마쳤습니다.

"영웅은 여러 일자리에서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희생하고 집에서 자녀를 돌보고 우리의 국가를 해외에서 지킵니다. 그들은 강한 어머니들이고 용감한 아이들입니다. 소방관, 경찰, 국경 경찰, 의료진, 그리고 해병대원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이 국회 의사당, 이 도시, 그리고 이 나라는 그들의 소유입니다!"

대통령은 또한 청중들에게 미국인의 꿈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긍지를 가지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우리의 가치를 신뢰하고 우리의 시민을 신뢰하며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면 실패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은 번창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번영할 것이며 우리 나라는 영원히 안전하고 강하고 자랑스러우며 자유로울 것이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America!"로 마쳤습니다.

짧은 1년 동안 미국이 기적적으로 많이 회복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 연설은 미국을 사랑하고 열심히 사는 미국인들을 연합하며 소망을 주는 연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초청한 모든 인종과 배경을 뛰어넘은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는 깊은 감동과 소망을 주었다는 의견이 많으나 물론, 정반대로 증오와 미움으로 계속 트집 잡는 무리들도 있기에 미국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주일예배 순서에 교독문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주일예배 순서에 사도신경 대신 주기도문으로 하면 어떤지요?  
-가든 그로브에서 존 박

**A:** 2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교독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일예배 순서에 과거에는 교독문을 예배 인도자와 청중이 화답식으로 낭독하였으나 요즘 교회는 교독문을 하지 않는 교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독문을 하는 것이 교인 신앙훈련 면에서 볼 때 더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를 인도하고 목회하는 목회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형제들이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나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찬양과 설교와 기도가 중심입니다.

교독문은 사실 성경 신구약 어느 일정 부분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교독문이라는 단어보다 교독성구라 할 수 있습니다. 교독문은 렉시오 나리(Lectioary)라고 해서 대개 교회력에 따라 매 주일마다 일정량

#### 주일예배시 교독문 낭독은 필수는 아니며 사도신경 대신 주기도문은 맞지 않음

의 성경을 낭독하였습니다. 절기 때에는 절기에 맞는 상황의 성경구절이 인용되고 낭독되었습니다. 교독문에는 시편이 주로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매 안식일 때마다 연속적인 성경읽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적으로 성경낭독을 한다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됩니다.

해재경 목사는 교독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데 예배 때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 무슨 큰 효과가 있겠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독보다 차라리 설교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중세 로마교회 예배가 미신화 되었지만 그나마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어 장치가 된 셈입니다. 우리는 성경읽기 자체가 말씀 선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공예배 때 성경읽기는 그만큼 중요하합니다."

둘째, 예배시에 사도신경보다 주기도문을 하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고백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고백(confession)입니다. 그리고 더 넓은 성교회와 성도의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삼위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 청중이 같이 고백함으로써 같은 신앙 공동체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했던 신앙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확고한 신앙고백 위에 내(예수님)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사람의 필요를 위한 기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시에는 주기도문보다 사도신경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회는 신앙고백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8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8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8.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8)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Dates: May 18(Fri)-21(Mon), 2018
- 2) Place: Old Westbury, NY USA

#### 3. Examination Subjects

- 1)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2)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Psalm 110:1-7
- (2) NT Exegesis Text : Rom. 4:17-25
- (3) Thesis Topic : Evaluate the New Perspective of Tom Wright in the view of the Reformed Theology.
- (4) Sermon Text : Luke 16:19-31
-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2.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3.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drjho@hotmail.com or jhothoben@g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JohnJhoOTExegesisPaper.pdf)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3) Oral Interview

#### 4. Accompanying Documents

-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8.
-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5) Curriculum Vitae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7) Fee: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ACPC (Retake Exam fee: \$100)

####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8.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8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3)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2nd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2-25, 2018).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8-21, 2018 Old Westbury, New York) through Rev. John Jho.
-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 7. Submission Address

Rev. John E. Jho / Address: 6554 W. Desert Inn Road Las Vegas, NV 89146 U.S.A.  
Cell: (7028) 296-9193, E-mail: drjho@hotmail.com, or jhothoben@gmail.com

####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Sunghoon Cho (718) 986-8442 kfpcny@gmail.com
-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John E. Jho (702) 296-9193 drjho@hotmail.com, or jhothoben@gmail.com
- 3) Treasurer of the Exam Committee : Rev. Jae Hyun Han (831) 9207043 jhanrev@gmail.com

총회장: 유재일 목사

서기: 최중현 목사

고시부 부장: 조성훈 목사

고시부 서기: 조용철 목사

증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세네갈의 플라 토로(FULA TORO)



플라 토로족은 세네갈 북동부의 푸타 토로 지역에 거주한다. 이 지역의 기온은 더운 계절에는 화씨 95-104도(섭씨 35-40도)까지 오르며 공기는 매우 건조하다. 이 지역에는 코끼리, 사자, 치타 등의 몸집이 큰 포유류와 흑산돼지(warhogs), 원숭이 독사 종류들도 서식하며, 하천은 악어와 하마, 각종 수생생물들의 서식처다. 또한

푸타 토로 지역은 이모작이 가능하므로 세네갈에서 가장 비옥한 농경 지대이기도 하다. 푸타 토로의 비옥한 토지를 찾아 다양한 종족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와서 토펙로(Tokolor) 또는 풀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형성됐다. 플라 토로 종족은 풀라니 방언을 사용하는 풀라니 종족과 연관이 있다. 풀라니 종족들은 사는 지역과 방언에 따라 이름을 붙여 산하종족 그룹으로 분류된다. 플라 토로 종족은 남부 고지대, 즉 'jeeri'에 사는 준유목민들이므로 그들의 언어는 '풀베 제리(Fulbe Jeeri)'로 불린다.

삶의 모습

플라 토로 종족은 준유목민과 유목민 두 그룹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원래 농사, 고기잡이 그리고 가축 기르기 등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소규모로 농사를 지으면서 대장장이, 가죽공예, 목공예, 용접 또는 도자기 굽기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다.

플라 토로 종족은 모두 무슬림이며 이것은 그들의 전통과 풍습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를 마을 학교로 보내 기도회와 코란 암송 등을 배우도록 한다. 그러나 실제로 성직이나 이슬람 신앙의 지도자가 되려는 경우보다는 아랍어와 이슬람에 관한 일반적 지식을 갖추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플라 토로 종족의 결혼은 신부 값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체로 소로 지불된다. 무슬림 전통

을 따라 네 명의 아내까지 허용하는 일부다처제가 일반적으로 성행하기는 하나 이혼과 재혼도 허다하다. 아내들은 각각의 처소를 갖게 되며 남편은 공평한 순서를 따라 아내들의 처소에서 머무른다.

촌락은 플라 토로 사람들의 생활의 주요 초점이다. 각 촌락의 중심부에는 지역 시장과 모스크가 자리 잡은 중앙 광장이 있다. 가족은 햇볕에 말린 벽돌로 벽을 쌓아 장방형 또는 원형으로 짓고, 지붕은 평면이며 내부 정열이 있다. 촌락들은 주민들이 경작하는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다.

촌장은 모스크의 이맘(무슬림 지도자)과 함께 마을의 중심가에 있어면서 지역 분쟁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촌장은 가운데서 우두머리를 선출해 촌락들의 수장으로 그의 직임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그는 곡물과 가축에 세금을 매기는 일, 마을 촌장과 이맘이 처리하지

못하는 분쟁을 해결할 책임 등을 지게 된다.

준유목민 플라 토로 사람들은 무리 지어 다니며 임시 막사에서 생활한다. 플라 토로 족의 막사는 가시 울타리로 둘러싼 일단의 움막집 후대용 움막집들로서 움막집은 장대에다 돛자리, 나뭇잎 그리고 지푸라기 등으로 덮여 만든다.

신앙

플라 토로 사람들은 모두 무슬림이다. 이슬람은 선지자 모하메드의 가르침에 입각한 종교이며 이슬람의 성전인 코란은 모하메드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전수 받았다고 전해진다.

이슬람의 "다섯 기둥"은 알라는 유일신이며 모하메드는 그의 선지자라는 신앙 선포, 하루에 다섯 번 기도, 구제, 금식, 그리고 일생에 적어도 한번 메카로 성지순례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슬람 학교들은 세네갈 전역에 걸쳐 세워져 있다. 세네갈은 불어 사용국인 것과 영연방의 일원인 한편, 이슬람 세계에서든 입지를 든독하게 유지하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재 성경의 일부만이 풀베 제리 언어로 번역됐다. 3개의 선교단체가 플라 토로 종족들을 섬기고 있으나 많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으며, 오늘날 알려진 플라 토로 신자의 수는 39명이다. 이들을 성공적으로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에 대해 눈뜨게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신학생, 美 슈퍼볼 MVP 되다

무명의 설움을 딛고 일어난 미국프로 풋볼(NFL)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쿼터백 닉 폴스(29). 신데렐라 같은 폴스 스토리를 접한 세상 사람들이 더욱 놀란 것은 성공한 풋볼 선수로서의 포부에 있지 않았다. 사람들은 지난 4일 슈퍼볼 MVP로 선정되면서 공개된 그의 신앙 이야기에 이끌렸다. 그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 지난해부터 신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은퇴 뒤 목사가 되어 청소년을 돕는 데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밝힌 것.



미국 ABC뉴스는 "폴스는 은퇴한 뒤 목사가 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 폴스는 슈퍼볼을 사흘 앞둔 지난 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부터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 계속 공부하고 도전하길 바란다"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다"고 전했다.

폴스는 지난 1년간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2012년 이글스팀에 지명됐지만 주전 자리를 잡지 못했다. 2015년 트레이드돼 다른 팀을 전전했다. 지난해에는 소속팀에서 방출당하면서 은퇴까지 고려했다. 그때 그에게 친정팀인 이글스가 다시 손을 내밀었다. 폴스는 후보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최정상급 주전 쿼터백 카슨 웬츠의 부상으로 주전 기회를 잡았다. 이후 승승장구하며 결승전 MVP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폴스는 소속팀에서 쫓겨나는 아픔 속에서도 그를 일으켜 세운 원동력으로 기도를 꼽았다. 그는 "선수로서 다시 돌아와 뛰는 것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믿음이 필요했다"면서 "내가 다시 경기에 나선 이유는 풋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어떤 선택을 했다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스는 그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평생 풋볼을 할 수는 없다"며 "고등학교에서 목사로 일하고 싶다. 내가 앞으로 찾아갈 학교들이 정말 많다"고 자신의 꿈을 소개했다. 이글스의 한 선수는 "폴스는 성경 말씀을 중얼거릴 수 있을 정도로 박학다식하다"며 "그런 지식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폴스뿐만 아니라 소속팀인 이글스 역시 '믿음의 팀'으로 유명하다. 선수들이 성경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있다. 폴스의 포지션 경쟁자인 웬츠는 최근 자신의 신앙을 언급하면서 많은 팀 동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글스 선수인 스테픈 위스뉴스키의 꿈도 폴스처럼 은퇴 뒤 목사가 되는 것이다.

능력 발휘하지 못하는 목회자 10가지 유형

많은 목회자는 '콜링(calling·부르심)'을 받아 목회의 길에 섰다고 고백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돌보는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자긍심이 강하다. 그러나 목회자 역시 불안정한 속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종종 정도(正道)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선교단체 '리더십 리소시스 인터넷서널'의 케빈 헬로란 목사는 인간의 연약함 탓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목회자의 10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문화선교연구원(원장 백광훈)은 최근 이 글을 번역해 소개했다.

헬로란 목사는 지나치게 미래 지향적인 사람을 첫 번째로 꼽았다. 그는 "항상 다음 목회 자리를 생각하거나 다른 역할을 꿈꾸는 이들은 미래에 대한 갈망 때문에 현재에 헌신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 16:10)

는 말씀을 제시하며 "주님께서 어떤 이유로 지금의 자리에 부르셨는지를 되새길 것"을 당부했다.

또 다른 예로 '쉽게 화를 내는 목회자'를 제시했다. 헬로란 목사는 "화를 표출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목회자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특히 감정적인 성도의 경우 목회자의 분노하는 모습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혼자 일처리를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우월하게 여겨 답답 목회자나 주변 동료 목회자들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자칫 교회 분열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을 사랑하는 목사 역시 목회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했다. 헬로란 목사는 "개인적인 용도로 교회 자금을 손대는 것부터 도박까지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형태는 다양하다"며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경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복하지 않은 목회자도 포함됐다. 헬로란 목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것이 목회하는 데 가장 큰 힘"이라며 "행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능에 대한 뿌리 깊은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헬로란 목사는 또 최근 문제가 된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을 예로 들며 "스킨십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을 두지 않으면 결국 처벌받게 될 것이다. 오해를 일으킬 만한 행동과 신체적 접촉은 절대 피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밖에 자기 관리를 못하고 게으르거나 특정 주제나 교회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도 목회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경없는기자회 "중국, 외국언론인 활동 통제하자"

국제언론인 인권보호 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중국 정부에 외신기자에 대한 취재 방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3일 국경없는기자회는 성명을 통해 "외신기자들의 중국 내 취재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외국언론인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문제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당시 한 국가자가 중국 경호원들에게 폭행당했다. 국경없는기자회도 이를 비판하며 "중국 내 외국 언론인들의 악화된 상황을 반영해준다"고 말했다. 이 단체가 발표한 '2017년 세계 언론 자유지수'에서 중국은 전체 180개국 중 176위를 차지한다.

중국외신기자협회(FCCC)도 문제인 대통령 국빈 방문 당시 한국 기자들이 중국 보안요원들한테 폭행당한 사실을 물리적 폭행으로 간주하고 중국 내 취재환경이 좋지 않음을 비판했다.

최근 중국외신기자협회가 발표한 '연간 업무환경 보고서'를 보면 117명의 중국 내 외신기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0%가 취재환경이 더 열악해졌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29%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중국 당국은 체류 비자 연장 거부라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외신 기자들에 압력을 행사해 왔다. 응답자 중 15%는 지난해 동안 당국의 위협을 받았다고 답했고 이는 과거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6%는 당국으로부터 '강제 추방'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중국외신기자협회는 "중국 당국이 또 외신기자들의 행사 취재를 승인하지 않거나 이동 범위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로 중국 당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비난에 대한 보복조치로 VOA, BBC, 파이낸셜타임스(FT), 가디언, 뉴욕타임스,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등 특정 외신의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취재를 불허했다.

또한 캐나다 글로브 앤 메일 소속 기자가 신장위구르자치구 취재로 당국의 감금 및 조사를 당했으며,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외신기자의 취재가 특별 제한을 받고 있다.

협회는 이밖에 25%는 취재원을 상대로 한 중국 당국의 괴롭히기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당국이 취재원을 소환해 조사하거나 억류하는 등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北엔 '코피전략' 南엔 '무역보복'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된 빅터 차(57)미 조지타운대 교수이자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선제 타격을 반대한 뒤 내정이 철회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0일 보도했다. 미국대사 내정자가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임명동의)까지 거친 뒤 낙마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차 교수는 '대북 선제타격은 해법이 아니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WP에 보내는 등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른 적임자를 서둘러 찾아야 한다"고 말해 차 교수에 대한 대사 내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WP는 전했다. 한국계 이민 2세인 차 교수는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하면서 내정 사실이 알려졌다.

다른 행정부 관계자는 차 교수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대사직을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은 과거 행적이 드러났다고 WP에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차 교수 부부가 과거 한국에서 벌인 사업에서 뭔가 드러났다는 식으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두 신문 모두 차 교수에 대한 검증이 수개월 동안 진행된 뒤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까지 받은 상태여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진짜 이유는 차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정책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차 교수는 지난해 12월 대사로 내정된 뒤 백악관의 제한적인 선제타격 계획인 이른바 '코피(bloody nose) 전략'이 위협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관계자들이 선제타격 전에 실행되는 한국 내 미국인 비전투원 대피훈련을 도울 준비가 됐는지 묻자 차 교수는 선제타격 자체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에 우호적으로 재개정되지 않을 경우 폐기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한마디로 차 교수의 잇단 고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상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차 교수는 WP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피츠버그나 신시내티 같은 도시 인구에 해당하는 미국인들을 위해 빠뜨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디로 뭘지 모르는 북한 김정은을 선제타격이 아니면 제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김정은이 같은 방식으로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압박을 통해 자기파괴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제한적 타격 못지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소 차 교수는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며 대북 강경론을 펼쳐 '매파'로 분류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고 말하면서 선제타격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차 교수 내정을 철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꼬집었다.

"평창올림픽 앞두고 북미간 정치 게임"

오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북미간 정치 게임이 본격화하면서 '평화 이벤트'로서 올림픽을 앞세우는 한국이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다고 미 CNN방송이 5일 보도했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미 관계의 새 돌고루를 마련, 한반도 정세를 바꾸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겨냥한 북미 간 싸움이 가동되면서다.

CNN방송은 "한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전면에 내세우려 하고 있지만, 북미 간의 정치적 살바 싸움을 멈추게 하진 못했다"며 "양자의 정치게임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조사업체인 '이코노미스트 인터랙티브 유닛(EIU)'의 아시아 비수 연구원은 CNN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미의 외교적 전쟁을 위한 플랫폼으로 전략됐다"며 "결과적으로 긴장은 분명히 고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미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도 웹비어의 부친 프레드 웹비어를 개회식에 참석하도록 하는 등 북한의 '악한 고리인 인권 문제를 고리로 최대 압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CNN은 북한 측과 워싱턴 대표단 인사들과 웹비어 부친이 근처에 앉아 개회식을 참관하는 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하루 전이자 문재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의 만찬이 예정된 오는 8일 북한은 열병식을 통한 무역 과시를 예고해 놓고 있다.

CNN은 "미국이 오도 웹비어 부친을 평창올림픽에 데리고 오는 것은 분명히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이에 맞서 북한은 열병식을 통해 수백 개의 미사일과 로켓발을 과시, 전 세계를 향해 자신들의 군사력이 과소평가돼선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의 안보전문 민간정보회사인 스트랫포의 로저 베이커 부회장은 "미국은 북한의 최근 화해 움직임에 대해 대화를 향한 입구가 아니라 한미 관계를 악화하기 위한 자연·시간별기 전술로 간주, 압박 전술에 변화를 가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북한은 북한대로 현재의 대화가 비핵화 논의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올해도 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며 "(핵·미사일) 프로그램 완성에 근접해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CNN은 미국의 올림픽 참석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이 극도로 정치화된 게임이 되면서 한국이 애초에 곤경에 처하게 됐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조치들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당면과제로 하는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약화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한국 측의) 외교적 승리도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웹비어 부친, 펜스 따라 평창개회식 참석...'대북압박 초점'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도 웹비어의 부친 프레드 웹비어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웹비어는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방문하는 마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손님 자격으로 개회식에 초대됐다.

펜스 부통령은 5일 출국해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는 5일간의 순방 일정을 소화한다.

평창에서 막을 내리는 펜스 부통령의 이번 순방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 캠페인을 지속한다는 데 거의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백악관 관료들이 전했다.

이를 위해 펜스 부통령은 올림픽 기간에 북한의 선전전에 맞서 싸우고 '모든 대북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갔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반복해서 강조할 방침'이라고 WP는 밝혔다.

미 인터넷매체 약시오스도 이날 "우리는 북한의 선전전에 올림픽의 메시지를 납치(hijack)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통령 보좌관의 발언을 전하며 펜스 부통령이 북한 정권의 억압적인 실상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44. 김창수(1905-1987)

김창수牧사는 1905년 9월 27일 황해도 재령군 해창리에서 태어났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박희도 목사나 윌로우스의 한인비행사양 성소를 다닌 박희성이 그의 외삼촌이다. 평양의 숭실대학을 다니던 그는 1925년 6월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가주에 잠깐 머문 후 평양에서 사역하던 엘리스 M. 부츠 여선교사의 소개로 캔자스시에 있는 파크대학에서 3년 동안 공부하고 1929년 5월에 우등으로 졸업하였다. 이후 에모리 대학을 거쳐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1935년 6월에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는데 그는 가주에서 만난 박영관과 이윤선의 후배에 감사했다. 이후 주립병원에서 1년간의 실습 후 상향 해군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람까지 준비하였는데 그의 병세가 위중하여 유카이 정신병자 요양원으로 보내졌으나 그 해 5월 향년 43세로 사랑하는 처자를 고향에 두고 이역만리에서 외로운 몸으로 별세했다. 이에 국민회의 지시로 그는 황사선 목사님과 함께 본 병원을 심방하였다.

하오 8시에 상향 크레이 스트리트와 몽고메리 스트리트가 만나는 워탈 빌딩 제216호에 진찰소를 개설하고 동포를 청하여 개업 축하연을 열었는데, 그 답례로 상향 지방회가 그 달 19일 오후 1시에 중국인 참수이집에 오찬회를 열고 김창수의 신가정을 환영하는 모임을 가지면서 이는 우리 옛 풍속에 의지하여 반사리를 하여 주었다고 했다.

1941년 12월의 성탄절 예배에서 김창수는 수전위원으로 섬겼는데 다음해 성탄절 예배에서는 설교를 하였으며 박사로 소개됐고, 황사선



김창수 목사(1935년)

1942년 6월 박용학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면서 김창수가 오클랜드 교회를 섬기게 된다. 그의 첫 설교는 노신태 전도사의 사회로 김은해의 대표기도, 노성애의 피아노 연주, 김자혜의 취임 축하사로 이어진 취임식에서였다.

그 해 추수감사절 예배는 김창수의 사회로 개회사가 있을 후 찬미 261장, 김자혜의 기도, 목사의 기도 성경낭독, 특별연주, 목사의 기도 성 교인 일동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 내용은 세 가지였다. 첫째, 상해 임시정부가 32년간 왜적과 싸웠고, 광복군을 건립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 대일전쟁을 발표하여 세계민족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점, 둘째, 주미 외교위원부 및 재미한족연합회가 작년 펠 하버 사건이후 재류 국방과 임시정부의 전시선전과 재정 수요를 돕고 재류 동포의 안녕을 보장한 점, 마지막으로, 재미한족연합회가 금년 8월 29일 나성 시청에 영원히 역사를 빛낼 만한 헌기식을 거행한 점이였다. 그 해 등록교인은 35명이었는데 이 해의 주일학교 학생은 25명에 애크 청년부 회원은 10명이였다.

1943년 5월 계삭회에서 감리사

예배 시간에 이들의 취임식을 거행하였는데 일반 교우는 교회의 진흥을 바라고 기뻐했다. 이 날 노신태는 교회를 대표하여 두 분 목사를 기쁘게 맞는다라는 인사를 하였고, 이에 박용학은 '서로 용서하고 또 믿는 마음이 굳건하면 만사가 다 잘 될 것이다'라고 답사를 하였으며, 김창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도덕적 생활을 근거로 하여 교회 사업과 광복 사업에 많은 유익을 얻자' 라고 답례했다.

같은 날 12시 반에 중국인 찬관 경환류로 자리를 옮겨 환영회를 열고 즐기다가 오후 2시에 헤어졌다. 그 해 성탄절은 김창수의 주례하에 그가 개회사를 담당하였고, 설교는 백인 목사가 하였다.

#### 상향 한인경위대

김창수는 유학생 시절에 내지학 생독립운동사건인 동맹단에 후원금을 기부하는가 하면 상향으로 이주한 1938년 이후 국민부담금, 의무금, 삼일기념금, 쿠바동포구제금, 내지한재의연, 동래 실수학교 보조금, 광복군후원금, 맛단사스 재류동포 구제금 등 조국 독립운동과 동포사랑에 관심을 가졌다.

자유를 찾기 위하여 싸우다 죽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와 같이 암흑한 우리 삼천리강산을 다시 광명의 빛을 주기 위하여 일제히 일어납니다. 이천삼백만 한인 가슴에 잠재하였던 애국심은 자유의 종소리를 들을 때 웅망스럽게 일어나 자유를 향하여 전진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포학무도한 놀림에서 신음만 하지 마시고 광명한 장래를 생각하시어 자유의 대한민국을 생각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우리를 착취하는 원수를 쳐 물리치기 위하여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미국과 연합국을 도와 싸우면 우리가 원하는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다시 부임

상향에 의사 사무소를 두고 오클랜드 교회 부목사로 시무하며 많은 도움을 주던 김창수는 1943년 8월 군의관으로 징병된다. 그 달 15일 전별예배를 드릴 때 교인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몬트레이 병영을 거쳐 텍사스에서 본토의 약품 보급 장교로 복무하였고, 태평양 전쟁이후 한국으로 파병되어 미군정 시기를 보내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만드는데 공헌했다. 당시 이승만이 김창수의 자동차를 빌려 탔다는 후문이 있다.

1947년 김창수는 오클랜드 교회에 다시 부임한다. 그 해 21명의 등록교인 중 14명이 비 활동교인이었다. 노신태 부부가 상향교회로 옮겨가고, 김창수의 가족이 갑작스럽게 교회 사역에 참여하지 않았음으로 어려움을 상상할 수 있다. 유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한편, 그들에게 교회와 병원에 페인트칠을 부탁하였고, 통일수업을 길렀던 이성봉 목사를 초청하여 목회를 쇠신코자 했다. 건강 쇠약으로 친구이자 매제였던 최리진 장로가 1년간 설교를 하였고, 사임하던 1971년에는 20명의 출석교인에게 주일학생 수는 9명을 넘지 못했다. 태평양 전쟁 이후의 변화된 한인 이민사회와 이민감소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김창수는 상향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면서 자비량 목회자로 1971년까지 24년간 오클랜드 교회를 섬겼다. 김창수는 1987년 9월 27일 소천하였다.

damien.sohn@gmail.com

### 1937년 선교의사로 임명, 1943년 상향 한인경위대 창립 독립운동 지원 1942년부터 오클랜드교회 시무, 43-46년 군의관 귀환후 71년까지 시무

#### 상향교회

김창수가 1938년 8월 나성에 거주하는 김형각의 딸 김헬렌과 약혼한 지 2달 후인 10월 윌리엄 A. 데이비스 감리사에 의해 상향교회 지방전도사로 임명받았으니 축하가 두 배나 된다. 그는 1939년 이후 1942년까지 3년간 상향교회에서 황사선 목사 하에 부목사로 사역하였다. 이즈음 그는 태평양신학교에서 신학공부를 하였다. 1939년의 연회회는 김창수가 목회자 공석인 한인교회에서 설교하고 해안지역을 전도하는 등 한인교회 목회자들을 잘 보조했다고 보고했다.

1940년 3월 25일 하오 8시에 김창수는 자택에서 교인을 초대하여 친목회를 열었다. 그 해 5월 15일



상향한인경위대 김창수, 뒷줄 왼쪽에서 셋째, 1942년

목사는 축복기도를 담당했다.

#### 오클랜드 교회

어네스트 S. 라이온스는 태평양 전쟁에서 제대한 박용학을 책임목사로, 김창수는 부목사로 임명하였다. 그 해 6월 13일 주일 오전 11시

1943년 1월 일명 '맹호부대'라고 불린 '상향 한인경위대'를 창립하고, 대장이 된 그는 본 경위대의 사명선언문을 작성하였는데 그 해 6월 라디오 방송에서 한국과 극동에 있는 동포들에게 이로서 연설하였다.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학정과 지배에서 신을 하기를 원치도 않고, 특히 우리 자손들로 왜적의 노에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향락하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유를 다시 회복할 기회는 멀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자유를 찾는데 등한시하여서는 안 되겠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희생으로 자유를 찾을 각오를 하여야 되겠습니까. 1919년과 같이 우리 자유를 위하여 담대히 서서 죽음을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 <4면에서 계속>

마지막 심판의 날에 바울과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은 우리 주 예수님께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자랑하는 그것이 사도바울의 진심이요, 전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다른 계획

과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오늘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바울의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목회자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데 그날까지 주님 거하실 성전을 지

어가는 주의 모든 일꾼들이 오해 속에 주님의 살을 물고 찢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서로에게 자랑이 되기 바랍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자랑이 되고, 성도는 목회자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

있는 자된 모두가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오해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을 향하여 성공하고 부자 되고, 유명해지는 다른 목적,

다른 영광을 향하여 있을 때 목회자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가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는 사도바

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고백이 되어 후회함이 없고 오해함이 없는 크리스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amenjd@gmail.com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해 온  
미드웨스트대학교  
www.midwest.edu

### Master and Doctoral Degree Program

Brain/Gifted Education 두뇌개발, 영재교육 석사, 박사학위 과정  
MBA - Public Policy/Administration 공공정책과 행정학 석사학위 과정

#### Master of Arts Education in Brain / Gifted Education

입학자격: 유아교육, 교육전공 학사학위 이상자 및 동등 학력자

#### Doctor of Leadership in Brain / Gifted Education Leadership

입학자격: 대학에서 유아교육, 교육 전공자, 유아교육, 교육전공 석사학위 이상자 및 동등 학력자, 교육경력 3년 이상인자.

#### MBA - Public Policy Administration

입학자격: 대학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 ● 학점, 학위취득 방법 ●

- 1) 미국 유학을 희망 하는 학생은 SEVIS 1-20 혹은 J-1 Visa
-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계절별 세미나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이 가능함.
- 4) 타 학교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함.

####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 B.A 학사- 경영학, 음악, 신학, 기독교교육학
- B.S 항공학과- 조종사과정, 승무원, 운항관리사
- MA 음악, 영어교육, 상담, 교육(두뇌개발, 영재 교육)
- MBA 리더십학, 공공정책과 행정, 글로벌비즈니스, 경영학, 투자
- M.Div 신학
- D.Min 상담, 교육, 목회신학, 선교,
- DM 음악 박사
- DL 리더십학 박사 - 경영리더십, 조직리더십, 두뇌개발/영재교육리더십

#### B.S in Aviation Management/ Flights 항공학 학사 및 국제 조종사 면장과정

전공: 항공운항과, 헬기운항과, 운항관리사, 승무원과정

신청자격 : 고졸이상자 및 전문대 혹은 대학 중퇴자, 대학졸업자, 전공에 관계없이 편입가능, 여학생 환영

#### ● 항공학과 특징 ●

- 1) 미국의 타 항공학과와 비교하여 저렴한 수업료
- 2) 한국에서 조종 실기는 2-3년 소요되는데 본교에서는 학위과정 중 조종사 면장까지 취득가능.
- 3) 비행 훈련을 위한 넓은 활주로와 실기용 비행기 20 여대 준비 되어있다.

#### Pilot Certificate Programs (국제조종사 FAA 면장과정)

일반 대학졸업자를 위한 조종사 면장과정- 1년 과정(자가용면장, 계기비행면장, 상업용 면장)

#### ● 본교소개 ●

본교는 1986년 세계인재발굴과 양성을 위해 미 중부 도시 St. Louis 에 설립되어 개교 32주년을 맞은 미국 대학교이며 워싱턴 DC 에 본교, 서울, 방콕, 페루에 Site 를 두고 있고 동문과 재학생은 세계 60 여개국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대학교이다.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대학코드 (USDE) OPE ID: 03528300  
미국,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학점과 학위를 인정 받는 미국정규 학위

입학상담 및 문의처 : 636-327-4645, 070-8690-2662,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Tel: (636) 327-4645 / Fax: (636) 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 리더십 코멘터리 (58)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 밤잠을 설치며 인생 최고의 날을 준비하라

권태와 게으름을 극복하라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날 때부터 게으른 사람은 없다. 몸이 아프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는 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으로 앓아누웠다가도 몸이 회복되고 힘이 솟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고 싶고 다시 일하고 싶은 의욕이 샘솟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고,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는 무위는 권태로 이어지고 권태는 게으름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게으름의 탄생 경위이다.

이와는 반대로 왕성한 활동은 관심으로 이어지고, 관심은 일에 대한 열정과 내일과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탄생시킨다. 권태와 게으름을 극복하고 꿈과 비전으로 충만한 리더가 되라. 그리고 밤잠을 설치며 인생 최고의 날을 준비하라.

최고의 날을 만드는 6가지 아이디어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순간에 역경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리더를 본받자. 삶의 지혜를 통해 인생의 쓰라린 고통을 견디며 마지막까지 보여준 성공자들의 사랑과 열정은 더 두고 앉지 않을 것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인간은 매일 알게 모르게 세 가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행위의 선택, 목적의 선택, 원칙의 선택이다. 첫째로, 행위의 선택은 우리들의 삶의 에너지, 다시 말해 우리의 의지력이다. 그리고 목적의 선택은 목표를 의미하며 그것은 우리가 가겠다고 혹은 성취하겠다고 선택한 것이다. 마지막, 원칙의 선택은 우리의 목표 달성 수단을 결정한다.

오늘을 내 인생의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여섯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그것은 자기 자

신으로부터 시작하라. 광범위하게 시작한 다음 범위를 좁혀가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라, 일단 작게라도 시작하라. 다른 사람과 나눠라, 조금씩 생각해 가지 말고 한 발씩 나아가라는 것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오늘을 살아간다. 어제와 내일은 오늘의 문법적인 시제변화일 뿐이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오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날로 만들어야 한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

### 왕성한 활동으로 관심 가지면 일에 대한 열정과 꿈, 비전 생겨 문제 생기면 창조주 하나님께 시선집중... 성공은 관계가 더 중요

이 오늘이라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새겨 넣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올바른 집중으로 진퇴양란의 위기를 극복하라

인생을 살다보면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진퇴양란'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로, 비즈니스와 인간관계의 문제로, 가정적인 문제로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특별히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맞이하는 위기는 더 큰 위기로 느껴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위기는 그 위기의식에만 집중하게 되면 태산처럼 크게 보인다. 그리고 끝없이 몰려오는 염려는 점점 더 나를 억누른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해야 할 것은 문제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다. 인간의 믿음이크면 문제가 작아 보이고 은혜가 크게 느껴지지만, 믿음이 적으면 문제는 커 보이고 해결

책은 찾을 수 없게 마련이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를 크게 보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데 있다. 인생은 믿음의 문제이다. 두려움은 사람을 경직되게 만들고 믿음의 눈을 가린다. 인생의 올바른 집중을 통해 삶의 딜레마를 명쾌하게 해결하는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미국 항공 우주국의 딜레마 해결방법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전해 내려오는 불문율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불착하게 되는 어려움은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소한 일에 있다. 누가 화장실을 더 오래 쓴다거나 깨끗하게 쓰지 못한다는 등 지극히 작은 갈등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한다. 이런 갈등은 곧 비행사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깨고 불협화음을 만들어 우주에서의 체류일정을 위기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본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감지할 때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아인 혼돈과 위기상황을 만들어 이들을 하나로 묶고 공동명체로서 관계를 설정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부러 기체에 고장을 유발해서, 그 고장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귀환할 수 없는 어려운 국면을 만드는 것이다. 승무원들이 다섯 시간정도 이 일에 몰두해서 고장을 수리하고 나면 그들 사이에 끈끈한 인간관계나 꿈을 거머쥐는 안제 그랬나는 듯이 해결되고 있던 우정도 되살아난다고 한다.

인간관계 속에서 남을 배려하지 않는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를 돕고 진전을 베푸는 이들과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내일과 미래의 아름다운 인간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성공은 관계로부터 시작한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로 우뚝 선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고 반면에 인격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은 차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화려한 것만을 추구하고 내면적으로 성숙된 것에는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는다. 받아들이려하기보다는 공격하려고 하기보다는 얻으려 하며 인정하기보다는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 우리는 지금 인간적 관계를 손익을 따지고 계산적으로 저울질 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미국의 카네기 공대 졸업생들을 추적조사해본 결과 그들은 이 구동성으로 "성공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85%는 좋은 인간관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면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찮은 일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고난을 극복했다. 그들은 부드러운 음성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며 진솔한 생각과 사랑을 품은 자신의 상황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나와 함께 손잡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웃이 어렵고 힘들 때, 병들고 실패했을 때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섬기고 돕는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대머리 복서 고구치의 인생역전 드라마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다. 어려움만 보고 낙심하기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일어나고 승리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대머리 복서 고구치 마사유키는 20대에 머리가 빠져서 가발을 쓴 채 직장을 다니면서 틈틈이 복싱 훈련을 하며 챔피언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어느 날 같은 체육관 선배의 은퇴경기 오픈매치에 나섰다 경기 도중에 가발이 벗겨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 광경이 TV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부업을 엄격하게 금지해온 회사에서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말하자면 가발 때문에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셈이다.

그런데 그의 사연이 화제가 되면서 가발과 발모제 회사의 광고 출연 문의가 쇄도했고, 직장 걱정 없이 복싱에만 매진한 덕분에 일본 랭킹 12위까지 올랐다.

(13면으로 계속)



**변명혜 박사**  
(아주사피서대학교 교수)

### 마음의 청소

3주 전에 아들이 결혼을 했다. 우리 집도 며느리 집도 별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서로 선물은 안하기로 했다. 아들은 뒤늦게 대학원을 가서 공부하느라 아무 수입이 없지만 지난봄에 졸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며느리는 그레도 서운했는지 나에게 냉장고를 사주고 싶다고 했다. 냉장고가 고장 난 것은 아니었는데 15년 이상 사용해서 성능이 옛날 같지는 않았기에 며느리 마음에 고맙게 받기로 했다. 냉장고가 들어오려면 쓰던 냉장고를 일단 차고로 옮겨야 하겠는데 세 아이가 대학, 대학원 졸업하면서 갖다 놓은 짐들이 이미 차고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책보따리, 침대, 의자 등 버리기도 그렇고 낡아져서 복잡한 처치 곤란한 물건들이었다. 그동안 정리하려고 해도 애들한테 물어봐야 버리든지 할 텐데, 엄마는 엄마대로 바쁘고 애들은 애들대로 바빠서 차고나 storage room이 되어버린 상태였다. 마침 결혼식 참석 차 한국에서 오신 부지런한 낯재 형부가 함께 차고청소를 해주셨다. 버릴 것, 도내어 할 것, 보관할 것으로 나누어 먼지를 뒤집어쓰면서 대강 청소를 하고 냉장고가 들어갈 장소를 마련해 놓았다.

새 냉장고가 도착하는 날, 쓰던 냉장고를 비우는 일도 만만치는 않았다. 냉동칸에는 고춧가루, 미숫가루, 멸치 등 한국에서 인니들이 보내준 식품이 꽤 많았다. 또 언제 넣어 놓았는지도 생각 안나는 품종 얼은 떡, 아이스크림, 버리지니 좀 미안하지만 안먹을 것이 분명명 장아찌 종류도 줄줄이 나왔다. 도와준다고 온 아들이 쓰던 냉장고를 들어내니 냉장고 밑에는 이사가 온 후 14년 동안 쌓인 먼지가 불만했다. 냉장고를 운반해 온 사람들이 가고 새 냉장고에 다시 음식을 옮겨 넣으면서 우리 마음에 쌓이는 먼지를 생각했다. 눈에 띄는 더러운 것은 청소하기가 쉬운데 숨겨진 먼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 불쌍스럽게 지저분한 모습이었다.

요즈음에 많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우리의 단점과 연약함을 막상 우리 자신은 인식하지 못한 채 주위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주님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필수적이라면 자기 자신을 늘 주님 앞에 돌아보며 점검하는 때 순간의 자기 성찰이 중요할 것이다. 또 하루를 마감하며 하루의 일들을 주님 앞에 돌아보는 매일의 성찰도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일주일이나 한 달, 그리고 일 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의도적이고 집중적인 마음의 대청소를 하는 시간은 우리와 주님과의 사이를 깨끗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다.

마음의 청소에는 비움이 채움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차고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꼭 들어찬 필요 없는 것들을 비워 버려야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듯이 내 마음에도 비워버려야 할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새로운 것들로 채워져야 할 때 새로운 것을 담을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닐지. 나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스물거리며 기어 들어온 교만, 어느새 마음 깊이에 감추어 놓았던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 등 주님이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은 것들은 미리 없이 비워 버려야겠다. 강한 자아로 가득 차서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틈을 막아버리는 돌 같은 마음도 비워 버려야겠다. 마치 냉동칸에 오래 낡아서 맛이 변해버린 음식처럼 상황에 맞지 않는 오래된 경험만을 내세우며 변화하지 않으려는 태도도 버려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에서 오는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 주변의 사람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채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겠다.

냉장고를 비우고 다시 옮기느라 아침부터 지친 몸을 쉬며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마음으로 선물해주셔서 고맙다. 잘 쓸게." 또 며느리에게는 말을 안했지만 혼자 말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어서 고맙다."

lpyun@apu.edu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 교회안내

<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949)854-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a href="http://www.thanksgivingchurch.com">www.thanksgivingchurch.com</a>	<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 노상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20 주일 2부 예배: 오전 9:2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20 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a href="http://www.lagc.org">www.lagc.org</a>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9:30 새 생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새벽,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a href="http://www.dkpc.org">www.dkpc.org</a>	<b>디아스포라선교회</b>  담임목사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품을 위해 일하는 진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전용), Fax: (213)210-69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a href="http://www.youngnack.com">www.youngnack.com</a>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a href="http://www.mjcc.org">www.mjcc.org</a>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아)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4부: 오후 11:45 새벽 기도회: 오전 6:00 Tel: (310)381-2202, Fax: (310)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월-금) 새벽 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b>베델한국교회</b>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일영아예배: 오전 9:15, 11:30 일요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6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a href="http://www.bkc.org">www.bkc.org</a>	<b>LA 복음연합감리교회</b>  담임목사 : 이영성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아동부/중고부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성경부 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성경연구(목요일)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a href="http://www.lagumc.org">www.lagumc.org</a>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1:45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대예배: 오전 7:30 금 요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9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b>얼빈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생 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영양기도회: 오후 7:30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b>월셔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 임영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b>은혜한국교회</b>  담임목사 : 한경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회: 365일 24시간 온/오프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Ct., Fullerton, CA 92633	<b>주님세운교회</b>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30(영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 생 기도: 오전 5:40(월-토) 성령대령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a href="http://www.junimchurch.com">www.junimchurch.com</a>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a href="http://www.gpc.org">www.gpc.org</a>	<b>좋은마음교회</b>  담임목사 : 신현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 기도: 오전 5:30(월-토) 주일예배: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mpervy Hwy., Yorba Linda CA 92866	<b>코너스톤교회</b>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 생 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245-4099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b>토렌스, Irvine 교회</b>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영) Fax: (923)665-0046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EM) 주일 5부예배: 오후 5:00(청년) 금요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할 후원교회들을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잘못 쾨 단추

기성복이 아닌 맞춤양복을 큰맘 먹고 샀다. 기성복을 사는 것보다 돈도 몇 배나 비싸고 시간도 걸리고 무엇보다 가봉을 위해 몇 번을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요즘 누가 양복을 맞춰 입어요?' 시대에 뒤떨어 졌다는 끈대소리도 듣기 십상이다. 이렇게 큰맘을 먹고 맞춘 양복 일지라도 단추 하나를 비뚤하게 꿰면 땀시는 고사하고 폼도 버린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돌아가는 상황이 꼭 단추를 잘못 쾨 것처럼 꼴불견이다. 적반

하장이라고까지 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나뭇잎에 그 밥입에는 틀림이 없는데 정치는 정치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비단 옷을 입고 밥길을 걷는 형국이다. 정치 이야기는 하고 싶지도 않다. 탄핵정국을 보면서 더는 뉴스를 보지 않으려 애써 도리질을 하는 중이다. 사대질을 하는 편이나 받는 편이 어느 한쪽에 속했거나 편을 들 생각은 애시 당초 없다. 이 편도 저 편도 다 맘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뜬 눈이 시땀 많은 장면들이 보이고 열린 귀

에 악다구니가 들리는 것조차 막을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하는 나의 한계 때문이다. 사회는 더 엉망으로 치닫는다. 자그마한 일이 터져도 그것을 침소봉대하기에 혈안들이다. 그냥 넘어가도 탈이 되지 않을 것조차 까발리기에 여념이 없다. 그 선두에는 당연하다는 듯 언론이 있다. 언론의 자유를 들먹이거니와 하면 통하지 않는 영역이 없고 국민의 알 권리라며 핏대를 세우면 사생활보호는 시궁창에 처박힌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인탄압이 끝나고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발족했다. 그 이름이 곧 답이 되었다. 진실은 들추고 그 죄는 덮었다. 수많은 죄가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에 따른 정의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치와 사회의 난맥과는 사뭇 다르게 처리된 것이다. 성숙하다고 이미 대한민국은 그런 유치한 단계를 벗어났다고 때를 지어 함창하는 오늘의 한국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묻고만 싶다. 종교 역시 다르지 않다. 종교는 그 추구하는 목적에 따른 독특한 정체성이 생명이다.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나름의 교리와 법이 있다. 이것저것을 두루 망설이면서 종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절대로 집법해서는 안 되는 그 종교만의 영역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호불호도 아니요 밖에서 거론할 성질도 전혀 아니다. 기독교에 창조론과 심자가와 부활을 빼면 더는 기독교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부정하라는 것은 기독교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기독교는 또한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 고 믿는다. 그럼에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거나 신이 왜 하나님 뿐이냐고 타도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 정말 대한민국(大韓民國)이냐고 묻고 싶을 만큼 작금의 한국은 소한민국도 못된다.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이다.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아무리 폼을 내려 해도 불가능하다. 옷깃은 짝짜기로 뒤 틀리고 어깨는 불균형으로 어설피다. 제아무리 옷이 좋아도 땀을 낼 수가 없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추를 풀면 된다. 그런 뒤 옷을 매만지고 단정하다 싶으면 단추를 꿰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지금 잘못 쾨 단추 푸는 것을 거부한 채 적폐 청산이나 사회정의만 외쳐대고 있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처방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콧대를 낮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편협한 목적을 키우고 있다. 이러나저러나 눈치나 봐야 하는 민초들이야 털어봐야 먼지뿐인지라 겁날 것은 없지만 이렇게 병들 어버릴 대한민국의 내일조차 걱정에서 지울 수는 없다. 새로 맞춰 입기는 했되 잘못 쾨 단추의 비틀린 옷을 멋지다고 자랑하며 으쓱이는 그들의 칼날이 무뎠고 권불심년의 기하학이 차면 설사 부관참시를 해도 알 턱이 없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스러지고도 이 땅에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의 후손들은 어이하란 말인가? 지금 아직은 너무 늦지 않은 지금, 그들이 잘못 쾨 단추를 풀고 땀시를 가다듬도록 툭툭을 들던 태극기를 들던 대한민국의 내일에 걸고 외쳐야만 되지 않겠는가? 바늘머리를 매서는 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어이해 잘못 쾨 단추에는 침묵만 하고 있는가? 침묵이 더는 금이 아니거늘. hanmac@cml153.org

미국대학 참여 부족으로 아쉬움

2018 세계교육선교대회 300여명 참석

범아시아·아프리카·아메리카대학협의회(PAUA)가 주최하는 '2018 세계교육선교대회'가 "제2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양육하자"는 표어를 내걸고, 1일부터 3일까지 플라신학교와 나성영락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2018세계교육선교대회에 참석한 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이번 선교대회는 오전과 오후는 플라신학교에서 학술컨퍼런스, 4개 그룹의 교육선교사 설명회, 21가지의 선택특강 등을 가졌으며 저녁시간에는 나성영락교회에서 선교집회를 실시했다. 첫째 날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플라신학교 대강당에서 약 3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집회는 정우성 목사(광영교회)의 사회로 개회 예배가 시작됐다. 예배 전 박종술 목사(KCCC 대표)의 인도로 찬양 순서가 진행됐고 박기호 교수(Fuller Seminary 선교대학원)가 대표로 기도하고, 손봉호 교수(PAUA 이사장)가 환영사를 하고, 임철순 이사장(글로벌국제대학)이 간증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잠인 22장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아이에게 가르치라' 제목으로 김남수 목사(뉴욕프라이미스교회)가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이영길 총장(우간다 쿠미대학)이 등단해 선교지 대학의 선교 보고를 하고, 러시아신학대학 총장 정도량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가 마쳤다. 저녁집회는 나성영락교회에서 6시45분부터 이성우 목사와 윤우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돼 샘신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가 대표 기도했으며, 선교지 대학들이 입장식을 마치고 한기홍 목사(미주대표 회장/은혜한인교회)가 개회 선포식을 했다. 이어서 손봉호 교수(PAUA 이사장),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가 환영사를 하고,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가 축사를, 김정일근(Y대학)이 졸업생 간증을 했다. 이어 남가주목사장으로부부합창단이 찬양한 후 이진섭 목사가 등단해 탄자니아대학 설립 간증을 하고, 송태근 목사(서울 삼일교회)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라'(삼상1:15)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몽골국제대학교 권오문 총장이 등단해 '선교지 대학의 선교보고'를 하고, 남가주장로성가단 중앙단의 헌금송 후 한기홍 목사가 등단해 '주제 메시지'를 전하고 공동축도로 첫째 날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번 선교대회는 구건희 총장(캄보디아 라이프대학), 이영길 총장(우간다 쿠미대학), 남기영 총장(몽골국제올란바토르대학), 김경인 총장(파키스탄 국제대학 설립총장), 유민 총장(키르키스탄 국제대학) 등 선교지 대학의 총장들이 선교보고 및 간증으로 참석자들에게 선교지 교육선교에 대한 도전을 심어주었다. 또한 선교지 대학들의 부스가 마련돼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특강은 '교육선교의 상황화', '선교지 대학의 생존전략',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선교지 대학의 학사관리 시스템', '재난시 위기 스타트스 관리', '부인선교사의 갈등 관리'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진행됐다.



복음광고 전시회가 세계교육선교대회가 열리고있는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렸다

'복음광고는 선교' 복음광고 전시회

세계교육선교대회 기간에 열려

세계교육선교대회가 열린 2월1일부터 3일까지 대회장소인 나성영락교회 교육관에 복음광고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전시회

는 '복음광고는 선교다'라는 컨셉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이어드 정기집 대표의 광고작품을 전시했다. (박준호 기자)

가수 자두가 들려주는 GBC 블레싱 콘서트

2월 14일부터 LA지역 한인교회 순회

가수 '자두'가 목사의 아내가 된 사연을 들려주는 GBC 블레싱 콘서트가 LA 지역 한인교회에서 순회 공연된다. 혼성그룹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하며 가정력과 캐릭터 강한 이미지로 '여자 싸이'란 애칭을 받으며 주목 받았던 가수 자두는 2008년부터

솔로로 가수 활동을 선언했다. 가요는 물론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며 짙은 호소력의 목소리와 퍼포먼스로 절정의 음악성을 뽐내기도 했다. 그 후 2013년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 리 목사와 결혼하면서 화제가 운데 가요계를 떠난 자두는 결혼 당 시 자신과 남편 모두 돈이 없어 신

혼여행을 가지 않았다는 인터뷰 내용이 전해지면서 세상을 놀라게 한 적도 있다. 화려하게 세상의 사랑과 명예를 모두 품었던 가수 자두가 목사의 아내가 된 사연을 이곳 LA에서 노래로 부르게 된다. 그동안 알리지 못했던 그녀만의 이야기가 멜로디를 타고 한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 주최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2월 14일(수) 저녁 7시 30분 나성순복음교회를 시작으로 16일(금) 저녁 7시 30분 에브리데이교회, 17일(토)



제11회 올네이션스 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열방의 회복 소원하며 30여 민족교회 참여

GIM 주최 제11회 올네이션스 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

제 11회 올네이션스 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가 글로벌국제선교교회연합회(Global International Missions, 대표 정윤명 목사) 주최로 지난달 28일 오후 5시30분 30여 민족 대표 목회자와 성도,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이스트 베이 지역인 샌 로렌조에 위치한 빌리지침례교회(담임 Kevin Waldrop)에서 미국과 한국 공국제올란바토르대학, 김경인 총장(파키스탄 국제대학 설립총장), 유민 총장(키르키스탄 국제대학) 등 선교지 대학의 총장들이 선교보고 및 간증으로 참석자들에게 선교지 교육선교에 대한 도전을 심어주었다. 또한 선교지 대학들의 부스가 마련돼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특강은 '교육선교의 상황화', '선교지 대학의 생존전략',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선교지 대학의 학사관리 시스템', '재난시 위기 스타트스 관리', '부인선교사의 갈등 관리'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진행됐다.

기도 요청내용과 함께, 각각의 당면한 심각한 기도 제목들(Prayer Issues)과 회복을 위한 영상발표가 있었다. 이어 열방 여러 민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각 민족 목회자와 시민들이 뜨거운 통성 연합기도를 했다. 특히 이날 미국 교회, 학교, 사회, 정부, 군인, 젊은 세대를 향한 영적 각성, 미국 캠퍼스 복음화 추구와 함께,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보호와 동성애와 낙태 등으로 창조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미국을 위해 GIM의 선교위원들이 새로 개정된 10개 미국 회복기도문을 Steve Willhite 목사(몽코드 Parkhaven Community Church교회 담임)가 선언 발표했다. Dr. Rick Durst의 메시지 후 페이시킴 명예석좌교수가 열방의 치료를 위한 하나님의 기도응답과 글로벌 리더를 위한 격려사를 했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북한이 미국과 대한민국을 향한 심각한 핵무

기와 사이버테러 위협이 있었으며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의 헌 집권정부가 공산화 체제 목표로 헌법 개정과 공조정치로 교회와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북한을 위한 선전도구의 동계올림픽으로 지시받고 인도된 정치적 의제에 맞게 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작년도 광화문 촛불시위도 공산주의자들이 북한과 중국의 비호로 주도해 음해와 거짓선동으로 박근혜대통령을 탄핵, 구속하고 최근까지 인권 탄압을 하고 있으며, 공산화체제를 위해, 조세를 이유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고 동영상을 통해 전했다. 이어 대회 사회자인 케빈 왈드로프 박사(샌프란시스코 게이트웨이 신학교)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공산화 체제를 목표로 하는 헌정권으로부터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으로 최악의 상태인 박대통령을 신속히 미국으로 오게 해 신변을 보호하고 전문병원에서 의료치료를 받아주시길 미국교회에서 기도해주시길"이라고 발표했다. 북가주 전 지역 교회가 연합해 연주한 크로마하프 연주팀(Enlightened Korean-American Women's Club, 대표 강영해, 단장 양경혜)의 아름다운 연주도 있었다. 대회장인 정윤명 목사는 오는 5월 제 11회 글로벌 다문화 콘서트와 10월 제 14회 글로벌국제선교대회(Global Int'l Missions Rally)가 실리콜밸리 산타테오 지역의 Westin Hills Church(담임 Karl Ortis)에서 열린다고 전하면서, 미국의 재 부흥과 함께 한국과 열방의 회복을 위해 여러 민족이 함께 결속해 협력할 것을 전하면서 미국 내의 많은 한인커뮤니티도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기사제공: GIM)



나이스크 창립25주년 감사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자"

나이스크 창립 25주년 감사예배

나이스크(대표회장 최교선 목사) 창립 25주년 감사예배가 2월 1일 오후 7시30분 평화교회(담임 김은목 목사, 사무총장)에서 열렸다. 김은목 목사 사회로 열린 감사예배는 류경열 목사(기획실장)가 기도했으며 박재는 목사(대회협력실장)가 성경 봉독했으며 GTS교수 일동이 특송했다. 이어 최고선 목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요4:20-2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최학량 목사(미주한인군목회장), 윤구현 목사(한국광주본부장), 박재신 목사(한국전주본부장), 송문규 목사(서남아시아 본부장), 윤사무엘 목사(회복의신학

회)가 축사했다. 이날 예배는 이병완 목사(실무회장) 축도로 마쳤다. 나이스크(NYSKC)운동은 예배회복을 통해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산다'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다. 나이스크는 사색기도-영혼의 호흡 삼성경애독-영혼의 양식 삼개인전도-성도의 열매 삼성수주일-성령의 교통 삼일조건남-축복의 도 등 5대 신앙생활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회)가 축사했다. 이날 예배는 이병완 목사(실무회장) 축도로 마쳤다. 나이스크(NYSKC)운동은 예배회복을 통해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산다'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다. 나이스크는 사색기도-영혼의 호흡 삼성경애독-영혼의 양식 삼개인전도-성도의 열매 삼성수주일-성령의 교통 삼일조건남-축복의 도 등 5대 신앙생활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청소년센터 '드림 토크스'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AYC)가 주최하는 '드림 토크스'(Dream Talks) 2월 23일(금) 오후 8시 "꿈꾸는 자가 온다"라는 주제로...

▲문의: (718)279-1313

테너 솔로리스트 청빙

뉴욕 롱아일랜드 힐스빌에 위치한 사랑의동산교회(담임 강신용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테너 솔로리스트를 청빙한다.

▲이메일: aerimkang@hotmail.com, yujung.bae@smsu.edu

리빙스톤교회 이전

코로나 104가에 있었던 리빙스톤교회(담임 유상열 목사)가 교회당을 베이사이드로 옮기고 지난 4일 첫 예배를 드렸다.

▲문의: (917)862-0523, (718)961-2171

뉴욕 뉴저지 교사 부모 세미나

뉴욕어린이전도협회(회장 최중대 목사)가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교사 부모 세미나를 갖는다. TCE 교사대학 1단계로 체계적인 이론 교육과 실제적인 실습 훈련, 효과적인 전도사역으로 진행된다.

▲문의: (312)286-4646

이승만박사 뉴욕지회 신년감사예배 및 세미나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뉴욕지회(회장 안창의 목사) 신년감사예배 및 대한민국 건국사 제 15차 세미나가 2월 10일(토) 오전 10시부터 플라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린다.

▲문의: (929)329-0835

“꿈과 기도와 성령 통해 새 일 이룬다”

KAPC 2018 동부지역 목사장로기도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동부지역 목사장로기도회가 뉴잉글랜드노회가 호스팅한 가운데 2월 5일부터 7일까지 그레이그빌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다.

“주여! 새 일을 행하소서(사 43:19)”라는 주제로 열린 기도회 중 강사는 김재열 목사(부총회장, 뉴욕센트럴교회)로 김 목사는 3번의 설교를 통해 새 일은 꿈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 이룬다고 말씀을 선포했다.

또 정부홍 목사(조난단 에드워드 연구소 연구원)가 “조난단 에드워드와 뉴잉글랜드의 부흥”과 “부흥의 결과와 선교”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인도했다.

5일 오후 7시 30분 드려진 개회 예배는 김학수 목사(뉴잉) 인도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동부지역 목사장로기도회에서 김재열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오리엔테이션 김대업 목사(뉴잉, 준비위원장), 환영사 황문영 목사(준비위원장), 개회선언 허상희 목사(대회장, 총회교육부장), 경배와 찬양 오세준 목사(뉴잉), 기도 이준호 목사(뉴욕서), 성경봉독 장부안 목사(펜실), 특별찬양 뉴잉글랜드 노회 노회원 일동, 말씀 김재열 목사, 축도 고택원 목사(전 총회장, 필라)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재열 목사는 “새 일을 통해 이룬다”(행 2:17-2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예배에 이

어 김대업 목사의 인도로 기도회가 진행됐다.

6일 오전 6시에 열린 새벽기도회는 사회 황상하 목사(뉴욕동), 기도 김재호 목사(가든), 성경봉독 정기태 목사(뉴욕), 말씀 김재열 목사, 축도 이만수 목사(뉴욕서)의 순서로 진행됐다.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된 세미나는 인도 장성철 목사(뉴잉), 기도 오영상 목사(뉴욕서), 세미나 인도 정부홍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오후 2시부터 이어진 세미나는 사회 문종은 목사(뉴욕), 기도 남일

현 목사(뉴욕서), 세미나 인도 정부홍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부홍 목사는 “조난단 에드워드와 뉴잉글랜드의 부흥”과 “부흥의 결과와 선교”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인도했다.

저녁예배는 한일철 목사(동남부) 인도로, 경배와 찬양 박민우 목사(뉴잉), 기도 임동열 목사(뉴욕서), 성경봉독 황태욱 목사(뉴잉), 특별찬양 사모 일동, 말씀 김재열 목사, 축도 이상수 목사(수도)의 순서로 진행됐다.

7일 오전 6시에는 새벽예배가 사회 주병영 목사(워싱턴), 기도 이종일 목사(뉴욕), 말씀 김재열 목사, 축도 황익진 목사(뉴욕)의 순서로 진행됐다.

폐회예배는 이종태 목사(뉴욕서) 인도로, 경배와찬양 박민우 목사(뉴잉), 기도 권영국 목사(뉴욕남), 성경봉독 임영건 목사(뉴욕), 특별찬양 뉴잉글랜드 노회장 부부, 말씀 전택영 목사(뉴잉 공로목사), 축도 김경일 목사(필라), 폐회선언 허상희 목사(대회장, 총회교육부장)의 순서로 진행된다.

(정라: 유원정 기자)



미동부 평창올림픽 찬양선교단 파송예배를 드리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동부 평창올림픽 찬양선교단 파송예배

뉴욕강원도목사회 주최...기념품 및 후원금 전달

뉴욕강원도목사회가 주최한 미동부 평창 올림픽 찬양선교단 파송예배가 2월 4일 오후 7시 뉴욕평화교회(담임 임병남 목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강원도목사회 회장 장석진 목사는 “너는 일어나 가라”(행 8:2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번 평창올림픽 찬양선교단으로 신앙심이 있고 웰러티 있는 CBS를 리픽합창단이 가게 된 것을 볼 때 이보다 더 좋은 합창단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찬양선교단은 하나님께서 파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목사는 또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한 것이며 성령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순종한 분들”이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라고 선포했다.

이날 강목회는 찬양선교단원에게 기념품(십자가 목걸이)과 기금을 전달했다.

파송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파송예식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현영갑 목사(사무총장) 사회로 기도 김택용 목사, 찬양 선교합창단, 설교 장석진 목사, 축도 임병남 목사(뉴욕평화교회 담임)의 순서로 진행됐다.

파송예식은 예식사 현영갑 목사, 조직소개 문석진 목사(자문위원장), 출원진 소개/공인연설 소개 김태수 목사, 특별출연 유진용 교수, 격려사 한재홍 목사(교협경증회장 단 회장), 기념품 증정 장석진 목사, 기금전달 현영갑 목사, 폐회기도 장석진 목사의 순서로 이어졌다.

(정라: 유원정 기자)



살롯장로교회에서 열린 한인회 신년잔치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살롯장로교회, 지역사회에 교회개방

한인회 주최 신년잔치...미안마교회에 예배당도 대여

살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근 목사)는 매년 한인사회 최대 행사인 한인회 신년잔치에 장소를 제공하며 적극 후원하고 있다.

신년잔치는 살롯교회 회장 최유찬 목사의 기도로 시작해 국가에 대한 경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그리고 애국가와 미국국가를 부르고 전승한 한인회(본 교회 사무장)의 개회 인사와 내빈 소개, 장학금 수여를 마치고 나성근 목사가 마침 기도를 드린 후 계속된 2부와 3부 행사를 예년과 같이 흥겹게 진행됐다.

한국왕복 비행기 표와 대형 가전 제품들 그리고 40파운드 쌀 100포와 식품들, 고급 주방 용기를 비롯한 생활필수품들이 행운권을 통해 나눠질 때마다 웃음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며 참석자들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오후시간에 살롯장로교회 본당을 빌려 미안마교회가 예배를 드린다. 그동안 살롯장로교회는 타 민족교회들에게 거의 무료로 예배당을 대여해왔는데 이번에는 200여명이 출석하는 미안마 교회가 사용하게 됐다.

(기사제공: 살롯장로교회)

퀸즈한인교회 공동의회 담임목사 청빙부결

1% 모자라 재검표 자격문제 제기...다음 주일 입장 발표

퀸즈한인교회가 지난 4일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청빙투표를 진행했으나 또 부결됐다.

지난해 7월 이규성 목사의 사퇴 후 공석인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퀸즈한인교회는 담임목사 후보자를 세우고 4개월 여만인 11월 5일 공동의회를 열었으나 41.1%의 찬성으로 부결된 바 있다.

그리고 2018년 2월 4일 주일에 열린 공동의회에서는 남가주사랑의교회 이상철 부목사를 4대 담임 목사 후보로 세웠으나 결정에 필요한 3분의 2인 66.66%에서 소수점

이 모자란 66.09%의 득표율을 보여 또 부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퀸즈한인교회 당회는 총 투표자 수 415명중 무효표가 5명으로 유효표 410명 가운데 찬성 271표(66.09%)와 반대 139표(33.91%)가 나왔다며 청빙이 부결됐음을 공고했다.

몇 명의 차이로 부결되자 재검표가 이뤄졌다. 그러나 유원자중 일부의 자격문제가 제기돼 당회는 다음 주일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유원정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churches like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리빙스톤교회, 퀸즈장로교회, etc.



영 김 후보

###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겠다” 영 김 연방하원의원 후보 후원의 밤 성황

캘리포니아 주 39지구 연방하원의원직에 출마표를 던진 영 김 후보의 첫 후원의 밤 행사가 지난 1월 30일 오후 5시 LA 한인타운에서 위치한 아로마센터 5층 원뿔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1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후원의 밤은 영 김 후보의 6월 대선까지 선거 기금 마련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열렸다. 영 김 후보는 "OC 수퍼바이저 출마를 준비 중이었는데 에드워디스 의원의 지지선언으로 연방하원에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로이스 의원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지역구의 현안문제를 다뤄왔으며 지난 2013년 주 하원의원의 경험이 의정활동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했다. 무엇보다 로이스 의원이 은퇴를 선언한 후 저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출마를 앞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는 말씀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확실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오는 6월 5일 예비선거를 통해 결선후보가 결정된다. 그리고 오는 11월 결선투표를 통해 연방 하원의원 당선여부가 결정된다. 선거를 위해 현재 25만 달러의 후원금이 모아졌다. 앞으로 선거 때까지 100만 달러 이상의 후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후원금과 투표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다. 제가 워싱턴DC 의사당에 입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한다"고 말했다.

### “한인 청소년들 혜택 누리세요” LACCD LA College Promise 및 DACA 갱신 기자회견

한미연합회(사무국장 방준영)가 2월 1일 오후 2시 LA커뮤니티 칼리지(LACCD) 총장 Dr. Francisco Rodriguez 및 CHIRLA와 Catholic Charities of Los Angeles 관계자들이 워크숍 및 갱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DACA를 갱신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2018년 3월 5일까지 서둘러서 신청해 달라고 촉구했다.

방준영 사무국장은 "현재 아주 짧은 기간 동안 DACA 갱신 기간이 열렸다"라며, "우리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많이 얻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신의 신분은 장애물로 삼지 말고 버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 한미 작곡가교류 창작성가 페스티벌 ‘하나님의 작곡가’ 16명 곡 소개

한미 작곡가교류 창작성가 페스티벌이 3일 오후 5시 호프인터내셔널대학교(총장 존 데리 박사) 오리토리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조성환 교수(호프인터내셔널대학교 교회음악과 과장)는 "귀한 음악적 재능을 하나님께 받은 분들이 사회 여러 방면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번에 한미 합동으로 국제창작성가페스티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됐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곡된 귀한 찬양곡들을 통해 한국교회의 찬양이 발전되고 그 열매를 통해 한국 교회 성도들과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번 창작성가 페스티벌은 장민호, 조성원, 김경희, 최승현, 강소정, 강유정, 문경희, 이호준, 우효진, 박수진, 이수련, 황현정, 정순희, 박지원, 최소영, 김수혜 등 16명의 작곡가들의 곡들이 소개됐다. (박준호 기자)

###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 할 수 있어 감사” 놀워연합감리교회 허귀암 목사 은퇴감사예배

허귀암 목사 은퇴 감사예배가 4일 오후 4시 놀워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허귀암 목사는 "목회자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고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이현준 목사(본교회 부목사) 찬양인도와 차권희 목사(놀워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 중부교회협의회 회장) 사회로 열린 예배는 김영수 장로가 기도했으며 아벨라라 목사(놀워연합감리교회 담임)가 '복음은 교회를 통해 계속 전파된다'(민 6:24-26, 벧전 1:23, 마 28:18-2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아벨라라 목사는 "은퇴에 대해 두려워 말라. 목사는 절대 은퇴하지 않는다. 허 목사는 강단에서 은퇴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은퇴하지 않는다. 허 목사는 교회와 한인공동체 안에서 계속 섬길 것이다. 허 목사는 15년간 러시아와 놀워연합감리교회에서 목사와 선교사로 신실하게 섬기셨다. 허 목사의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됐다. 허 목사와 사모님이 신실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에 신실하시다. 그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민준기 목사(중부교회 증경회장, 가정장로교회 원로)와 김영대 목사(중부교회 증경회장, 중부연합감리교회 은퇴)가 축사와 권면을 했으며 허귀암 목사가 은퇴인사를 했다.

이날 예배는 김영찬 목사(효사랑선교회 대표, OC목사회 증경회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은혜한국어재단 창립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정립을 축하하는 박수를 치고있다

### 은혜한국어재단 창립총회 이사장 홍연숙 교수, “선교도 할 수 있을 것”

은혜한국어재단(이사장 홍연숙 교수) 창립총회가 1월 31일 오전 11시30분 만리장성 식당에서 열렸다.

홍연숙 이사장은 "중요한 것은 이 재단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멕시코 중남미 국가의 한류영향으로 한국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 티화나 클래스가 하나 더 생겼고 엔제나나 한클래스가 개설됐다. 재정지원 가능하고 좋은 강사 확보되면 쿠바 과테말라에도 신설하도록 노력하겠다. 한국어의 세계화로 조국위상을 높이고 선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정우 목사 사회로 열린 창립총회는 이우호 목사(아메리칸 한인연합재단 총회장)가 개회 기도했으며 홍연숙 이사장이 환영사와 내빈소개, 이강원 총장(캘리포니아 신학대학교)이 축사했다.

이어 홍 이사장이 이사진 소개 및 임명장 수여를 했으며 백경희 선생(이대 남가주동창회장)이 본재단의 창립배경 및 첫 사업설명을 했다. (박준호 기자)



한미특수교육센터 LA사무소 오픈하우스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한미특수교육센터 LA사무소 오픈하우스 전문의 상주 한인 영유아 조기치료 서비스

한인 영유아 발달장애 및 자폐 치료를 위한 한미특수교육센터 LA 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장은) LA사무소에 소아발달 전문의를 상주시켜 영유아 조기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2일 한미특수교육센터 LA사무소는 6가와 하버드 코너 건물 4층(3727 W. 6th St. #403)에서 오픈 하우스를 실시했다.

로사장 소장은 "오렌지카운티에서 18년간 한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해 서비스를 했다"며 "LA에도 브렌치 사무소 열고 언어치료 발달장애 진단할 수 있게 됐다. 한인 가정 상담소 등 여러 기관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특수교육센터는 영유아 및 청소년 대상 언어검사를 통해 연령별 언어 이해력 표현력 치료방법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문의로는 LA사무소(323-736-2040)나 웹사이트(www.kasecca.org)를 참조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한미작곡가교류 창작성가페스티벌에서 참석한 작곡가들과 관계자들이 청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서부교회게 게시판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라’  
남가주든든교회(담임 김현인목사)는 2세대의 가치관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김새라사모(TVNEXT 공동 대표)를 강사로 '미국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2세대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토요일(10일) 오후 4시. 또한 주일(11일) 1부, 2부와 오후 시간에 유성국목사(뉴라이프선교회 담임)를 초빙해 전도세미나를 갖는다. 유성국목사는 웨스턴시스터에서 신학을 하고 교회사역과 함께 전도사역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문의: (213)481-2779

소망소사이어티 Support Group 운영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에서는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Support Group을 2월 21일(수)부터 매주 1회씩 운영한다. 이 모임은 매달 셋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 부터 12시까지이며, 무료로 운영된다. 모임 장소는 W Anaheim UMC(2045 W Road, Anaheim, CA 92804). ▲문의: (562)977-4580

나성영락교회 설립45주년 기념 찬양콘서트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설립 45주년 기념 찬양콘서트를 11일(주)에 갖는다. 이번 찬양콘서트는 가수 윤희주 장로가 출연하며 3부 헌금송과 4부 특별찬양순서를 갖는다. ▲문의: (323)227-1400

KAPC 북가주노회 찬양예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유재일 목사) 북가주노회 찬양예배가 11일(주) 오후 5시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손원배 목사) 분당에서 열린다. ▲문의: (408)263-5100

칼빈국제대학교 제 1회 품성세미나  
칼빈국제대학교(총장 김연택 박사)는 제 1회 품성교육세미나를 12일(월)과 13일(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 103호에서 갖는다. 강사는 안주영 박사(한국품성교육협회장, 칼빈국제대학교 교수, 대한민국 인성교육 대상 수상)이며 참가비는 개인 50달러, 부부 70달러(나침반교인 20달러). ▲문의: (562)691-0691



남가주장로협의회 이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남가주장로협 회장 김용식 장로 취임 43대 이취임 감사예배, 수석부회장 김영균 장로

제 43대 남가한인장로협의회(이하 장로협) 이·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1월 28일 오후 5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린 가운데 한철수 장로가 이임하고 43대 신임회장 김용식 장로가 취임했다. 특별히 이날 이·취임 감사예배에는 한국장로총연합회 대표회장 최광혁 장로, 총무 이종식 장로, 회계 이태휘 장로 등이 대표 축하사절단으로 참석해 세로 출발하는 43대 회장 김용식 장로 및 임원진들을 격려했다.

김용식 장로는 "남가주한인장로 협회를 세워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날로 부흥시켜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며 "겸손함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사를 대신했다.

수석부회장 김영균 장로 인도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하기인 장로 기도, 광덕근 목사 설교, 김광배 장로 삼당소 등 여러 기관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혁 장로는 축사를 통해, "오늘 이·취임 감사예배를 통해 남가주장로협회가 한층 더 역동적으로 새로워지고 도약하는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새로운 회장님의 취임은 계기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오늘 우리들을 세워시 일하게 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광덕근 목사는 "부름의 상"(빌 3:13-14)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달려가야 할 뜻대는 예수 그리스도다. 무거운 죄를 벗어 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뜻대(부르심의 상)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며 "사도 바울에게도 사명이 있었듯이 남가주장로협회에도 사명이 있다. 먼저는 속한 교회에 충성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 한마음 한뜻의 연합의 영성으로 하나님나라 확장에 헌신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르심의 상'을 받는 귀한 장로협회 회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광혁 대표회장은 한철수 직전회장에게는 공로패, 신임 김용식 회장에게는 축하패를 각각 전달했다. 신임회장 김용식 장로는 직전회장 한철수 장로에게 공로패를 수여했고, 직전회장 한철수 장로는 이 민희 원장, 하형수 권사, 오성에 권사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43대 회기에는 행사자문위원을 신실하고 김진자 권사, 하형수 권사, 오성에 권사를 임명했다. 신임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용식 장로 △수석부회장 김영균 장로 △부회장-박남수 장로(선교), 유문근 장로(재정), 노수길 장로(기획, 운영), 오승홍 장로(행사, 홍보) △감사 김봉호 장로, 이영수 장로 △행사자문위원 김신자 권사, 하형수 권사, 오성에 권사 △사문변호사 마동환 장로 △총무 이형배 장로 △회계 김광배 장로 △서기 김경성 장로. (정리: 박준호 기자)

## 지금 교회현장에서...

교회마다 교회학교 교사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다. 다음세대를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교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의 한 대형교회 교육담당 목사는 요즘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교회학교에 젊은 교사를 구하는 데 노심초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이나 청년부원을 영입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기본적으로 모든 교육 부사들이 젊은 교사를 원하는 데다 청년들이 주일에 너무 바쁜 탓이다. △서울 시내에 있는 A교회 영여성경반은 요즘 '합반'이 대세다.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회학교 교사를 구하다 보니 늘 교

대 부당스러워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형교회인 서울 여의도의 C교회는 아예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한다'는 안내문을 붙여놓고 상시 모집 중이다. 영·유아부터 초·중·고·대학·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학교 교사는 필수적이다. 반별로 성경을 가르치고 각종 프로그램을 담당하면서 학생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교회학교 청년교사 품귀 왜

하지만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기까지 다양한 장애물이 있다.

### 교회마다 주일학교 교사 태부족...성경공부 사슴할 관 학생들도 줄어드는데...교사 구인난 '설상가상'

사가 부족하기 때문. 방학을 맞아 귀국한 유학생이나 카투사, 군인 등으로까지 모집 대상을 넓혔다. 하지만 생활 관리가 되지 않아 교사들 결석이 잦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사가 결석한 반 아이들은 늘 이 반, 저 반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사 모집합니다” 상시 안내문 붙여

교회학교마다 교사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다. '1020' 다음세대 기독교인 비율이 감소하는 상황에 이어 이들을 담당하는 교사마저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교회교육에 빨간불이 켜졌다. “성경공부까지 사슴하게 생겼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경기도 부천의 B교회는 몇 년 전부터 교회학교 교사 모집 안내문을 재공고하는 게 다반사다. 교사 정원을 매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 관계자는 “만성적인 교사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게 벌써 몇 년째”라며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생을 맡는

20대 청년들의 경우 교회학교에 묶여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또 교회학교 예배 시간이 대 학부나 청년부 예배 활동시간과 겹친다.

‘봉사 강도’가 높은 교사 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 교회학교 교사는 기본적으로 주중, 또는 주말에 공과공부를 준비한다. 또 많은 반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지, 결석자나 아픈 아이는 없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예배 전후로 교사 모임이 있고, 여름·겨울 방학 때는 성경학교 등을 준비해야 한다.

청년들에 대한 교회의 지나친 헌신 요구 또한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김희성(가명·28)씨는 7년 전 처음으로 교회 초등부 4학년 교사를 맡았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생각에 시간을 들여 자체 성경공부도 했고, 주중에도 아이들을 만나 떡볶이 등을 사주며 교제했다. 교회에선 ‘헌신하는 청년’으로 이미지가 굳어졌다.

그것이 문제였다. 목회자들은 ‘할 수 있는 사람이 허락이 없다’

며 수시로 헌신을 요구했고, 김씨는 점차 지쳐갔다. 결국 그는 지난해 7월 교회학교 교사를 그만뒀다. 김씨는 “성도들 개개인의 삶을 존중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특히 20~30대 젊은 층에게는 강한 반발심을 갖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도 교회교육 동반자로”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정착을 위한 교회의 노력도 눈길을 끈다. 교사훈련원 운영이 대표적이다. 서울 사랑의교회는 10주 과정의 교사훈련 과정을 두고 있다. 타 교회 교사 지망생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소문수 사랑의교회 교육담당 목사는 31일

“교사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교육부서마다 ‘교사 다락방’을 만들어 전담 순장을 두고 교사 심방과 돌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영락교회도 오랜 전통을 지닌 교사훈련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교사의 절대 수, 특히 젊은 교사는 부족한 상황이다. 백성우 영락교회 교육담당 목사는 “교사가 부서에 잘 정착하기 위해선 결국 각 교육부서 내 교사 공동체가 화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각 교육부서의 교사 공동체(소그룹)를 강화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진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장은 “교회가 다음세대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교사들을 위한 복지나 그들을 격려하는 구조는 미흡하다”면서 “그들을 충분히 대우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학교의 무게중심을 교사에서 학부모로 옮겨야 하는 것, 즉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뽕바침’에서 탈피해 ‘자녀 양육’ 구조로 바뀌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어난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비기독교인들이 단순히 ‘수의 논리’와 용어의 어감에 따라 신천지 손을 들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는 이에 위기를 느끼고 30일 교단 산하 전국 목회자 1만명에게 긴급 문자를 보냈다.

총회장 최기학 목사와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황수석 목사의 명의로 발송된 문자에는 ‘현재 신천지가 청와대 게시판에 이단 대책 관련으로 일하는 목사를 구속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며 ‘각 교회와 교인들이 접촉해 반대의를 분명하게 표명해 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다.

예장통합 총회 관계자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하나 뫼의 회복과 평화 구현은 38선 넘어 북녘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통일 이후 평양과 의주, 함흥 등 북녘에 있다 없어진 YMCA 지회 복구를 위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단과 전쟁, 독재를 경험하지 못해 통일에 둔감한 청소년 세대를 위한 평화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순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선언문에 명시된 11명 유학생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두었는가가 생각하면 쇠충한 마음이 든다”며 “선언문을 읽고 후학 후국 내로 들어와 3·1운동에 영향을 미친 도교 유학생들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YMCA는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와 한국기독교3·1운동100주년위원회, 국가보훈처 등과 함께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교육·발간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 침신대, 이사 9명 선출... ‘10년 내홍’ 해결 실마리

기침 총회장 “정상화에 한마음 결의”

이사회 파행 등으로 내홍을 양던 침례신학대(침신대)가 사태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이사회는 29일 충남 천안 예전교회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공식인 개방이사 등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총회 파송이사 거부에 따른 공식 파송 등으로 10년 가까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던 이사회가 사실상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총회와 침신대 이사회 등에 따르면 전남 긴급처리권을 통해 모인 이사회에서는 참석자 전원 합의로 이사 9명이 선출됐다. 이사 선임이 제

때까지 도한호 전 총장이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토록 결의했다.

안희목 기침 총회장은 별도 메시지를 내고 “그동안 갈등과 반목으로 절절된 침신대 이사회 문제에 종지부를 찍고 법인 정상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결의했다”면서 “이번 침신대 이사회 정상화에 대해 사사로이 이익과 감정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교단을 망치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교단과 학교를 위해 계속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총회장은 이어 “이제는 답답한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희망과 꿈이 현재를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교단 규약과 각 기관 정관 개정 등을 통해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또 이형원 침신대 총장 권한대행이 다음달 8일까지 임무를 맡고, 이후부터 차기 총장을 선출할

## 제 31회 기독교문화대상 시상식

수상자는 김석균, 김관영, 윤안나

기독교문화예술원(원장 안준배 목사)이 주관하고 세계성령중앙협의회(대표회장 이수형 목사)가 주최하는 제31회 기독교문화대상 시상식이 2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대학로 작은극장 광야에서 열린다.

한 해 동안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기독교정신을 담아낸 작품과 작가를 선정, 발표된 작품을 관련기관과 전문인인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를 거쳐 선정된 각 부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음악부문: ‘예수가 좋다오’ 복음서가 작곡 김석균 △뮤지컬부문: ‘더 북’ 제작자 김관영 △영화부문: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서서평 역 배우 윤안나.

음악부문 수상자 김석균의 복음서가는 기독교인의 청장년 전 연령대에 애창되고 있어서 수상작품으로 단 한 개를 선정하기 어렵지만 대표수상작으로 〈예수가 좋다오〉를 선정하였다. 김석균이 작곡한 복음서가는 한국교회 예배음악의 지경을 넓혀 음악부문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뮤지컬부문 수상자 김관영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 뮤지컬 - 더 북(The Book)의 제작자로 ‘뮤지컬 더 북’은 오직 말씀(sola scriptura)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정신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었

## 2000여명 나라 위해 7끼 금식기도

‘느헤미야 국가금식기도성회’ 환돌산기도원서

1일 ‘느헤미야 국가금식기도성회’가 열린 경기도 화성 봉담읍 환돌산기도원. 전국에서 모인 2000여 명의 ‘열렬’ 기도자들은 가슴을 치며 통회자복하고 있었다. 이들이 이곳에 몰려든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정책(코피전략·Bloody nose) 및 북한의 핵위협, 한국사회의 이념적 혼란, 반기독교문화 확산 등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성’이 무너지는 상황(겔 22:30)을 무기력하게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사흘간 휴가를 내고 성회에 참석 한 박영미(56·여)씨는 “우리의 신앙 선배와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지킨 나라와 교회가 위기에 빠졌다”면서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자유와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달려왔다”고 울먹였다. 세 자녀와 강릉에서 온 최현주(38·여)씨도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위기상황이라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

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느헤미야는 BC 430년쯤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신앙 지도자다. 그는 예루살렘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느 1:3~4). ‘실천적 신앙인’의 표상이었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왕에게 간청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말씀을 회복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이뤘다.

주강사로 나선 이영환 윤석전 안용운 피기영 목사, 이기복 이용희 이정훈 교수 등은 “기도로 세운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위기는 물론 영적 위기까지 직면해 있다”며 “국가적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순교신앙으로 승리하자”고 당부했다.

임술이 하양계 틸 김광덕(46) 전 도사는 “강의를 들으며 현재의 혼란 상황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영

기에 뮤지컬부문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영화부문 수상자 윤안나는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에서 서서 평역을 맡은 윤안나는 독일인이면서 기독교인으로 많은 역할인 선교사라는 직업에서 오는 디테일한 감정선까지 뛰어나게 보여주어 영화 부문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기독교문화대상은 1983년 제정된 뒤 30회에 걸쳐 국내 최정상 문화예술인을 선정 시상해 기독교 문화예술이 심층 확대되는데 기여해왔다. 수상자에게는 상금300만원과 상장, 메달, 상패가 수여된다.

시상식 메시지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훈 목사가 맡아 교브리서 11:1-3을 중심으로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기사제공: 기독교문화예술원)

적으로 분명히 알게 됐다”면서 “7끼 금식이 힘들지만 국가를 위한 기도인 만큼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기도자들은 잠자리와 씻는 게 모두 불편했다. 하지만 구멍 뚫린 독을 기도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다. 부산에서 온 남정인(77) 장로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나라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의 일”이라며 “지금은 불편한 잠자리를 맞출 때가 아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성도들이 깨어나도록 나라사랑 이야기를 꼭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문장극 전 고려대 석좌교수는 “한반도 통일의 목표는 이사에서 58장 말씀처럼 흥악의 결박을 풀고 멍에를 꺾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데 있다”면서 “우리가 금식기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통일될 때까지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면서 “북한주민을 유아매는 주제사상, 우상종교를 해체시키고 복음통일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원투표 전쟁터 된 청와대 토론방

신천지, 이단상담사역 목사를 ‘강제개종목사’ 라며 구속 요청

신천지에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지난 1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 토론방에 올린 ‘강제개종목사 구속해 달라’는 제목의 글을 놓고 찬반투표 경쟁이 치열하다.

31일 오후 7시 현재 찬성이 30만 1500명, 반대가 22만 1200명으로 찬성 측이 우세하다(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신천지 신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천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SNS 계정별로 중복 참여를 조직적으로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현재 이 글은 토론방의 다른 사안에 비해 압도적 관심을 모으면서 ‘베스트 토론’ 1위로 등록했고, 19

만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신천지 신자들은 이 밖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강제개종교육금지법 제정’ 등을 지속적으로 청원하고 있다.

문제는 ‘강제개종 목사’란 용어가 이단상담 등을 통해 신천지 교리의 허구성을 알리고 있는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이단상담소협회) 소속 목사들을 폄하하는 신천지 신도들만의 용어라는 점이다.

하지만 신천지 측 주장과 달리 이단상담소협회는 이단 상담을 하게 될 경우 본인과 부모 동의를 받고 있고, 상담이 끝나면 폭행 폭언 등이 없었다는 걸 본인이 자필 서명하는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고 있어 강제개종의 개념에서 벗

## “100년 전 기독교청년들 신앙적 열정 재연...”

2·8 독립선언 100주년 준비 세미나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은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 제일본 한국YMCA에서 이뤄졌다. 2·8독립선언 100주년을 1년 앞두고 서울YMCA시민반단위원회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는 5일 서울 종로구 서울YMCA(회장 이석하)에서 ‘2·8독립선언 100주년 준비 기억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2·8독립선언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주제로 발제한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은 “2·8독립선언문은 3·1운동 당시 기미독립선언문 선포를 전후해 가장 먼저 발표된 독립선언문”이라며 “죽을 각오로 혈전을 벌일 것이라는 청년학도들의 비장한 독립의지와 정신을 천명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100년 전 청년들이 보여줬던 나라 사랑의 행동과 신앙적 열정을 오늘날 어디에서 찾을 수 있

는가”라고 자문하면서 “오늘날 기독교 사회운동단체들의 모습은 좌고우면하며 서성거리는 나약한 모습으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혈전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꿰어오르는 청년이었기 때문”이라며 “청년성을 회복하는 것이 2·8독립정신을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했다.

이덕주 가리교회신학대 교수는 ‘2·8독립선언의 내용과 계승 과제’를 발제했다. 이 교수는 “100년 전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구현하고자 애썼던 기독교 청년들의 이상적 가치를 재연해야 한다”며 “자유와 정의 위에 세워지는 평화가 그 가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큰 기쁨이 된다”며 “회복을 통한 평화운동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19세기 말, 한국교회 초창기로 꼽히던 당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 큼 어려웠다. 세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하기도 했다. 1886년 7월 16일, 노준경은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랑방에서 선교사들이 보초를 서는 가운데 이 땅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다.	오늘, 이른바 ‘쌀 신자’를 막기 위해 복음서와 기본 교리, 교회생활 안내서로 예비 세례자를 교육하는 ‘학승 제도’를 운영한다.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 선교사가 쓰고 사무엘 마렛 선교사가 번역한 ‘위임요약서’가 교재였다. 외위야 할 것도 많고 무엇보다 전도를 강조했기 때문에 한두 차례 고백을 마치는 건 예사였다.	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인생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의미였다”고 했다. 그는 요즘처럼 세례받는 일이 쉬워진 데 대해 ‘교세의 폭발적 증가에서 원인을 찾는다. 다른 교회로 옮겨 다니는 신자들의 수평 이동이 늘면서 굳이 신앙생활의 기초를 가르칠 필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어려운 학습 대신 ‘등록 안내’만 하면 됐던 것이다.
이듬해 1월 23일 서경조 정공빈 최명오는 언더우드를 만나 “왕	이 같은 내용은 옥성득 미국 UCLA 한국기독교학 부교수가 자	초신자들과 수평 이동 신자들
간간했던 기독교 초창기 세례 심사...변호사도 탈락	111년 전 새문안교회 당회록으로 본 세례식	
이 목을 쳐도 좋소”라는 청원 끝에 세례를 받는다. 갑신정변 이후 중국 상하이로 망명을 떠난 윤치호가 1887년 3월 10일 세례를 받고 쓴 일기도 유명하다.	“10시에 삼가 세례를 받다. 이날 하늘은 맑고 날씨는 따뜻하네 바람도 잔잔하고 구름도 갇혀서 근일에 제일 좋은 날씨이다. 이날부터 나는 삼가 주님을 받들 것을 맹세했으니 가히 일생에서 제일 큰 날이라 하겠다.”	이 함께 등록을 위한 안내를 받는 일이 교회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한번 쉬워진 세례의 문턱이 다시 높아지는 건 어렵다. ‘값싼’ 세례가 만연하고 있는 셈이다. 옥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세례가 지녔던 무게감을 상상 이상이었다. 1890년대 장로교회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 교회에 나	옥 교수는 “초기 기독교 사회에	“한국교회가 건강성을 회복하는 길은 제대로 된 신자를 기르는 겁니다. 초기 한국기독교의 모습을 되찾으면 됩니다.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에 필요한 건 미래전략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온 역사책이 아닐까.



### 교도소 선교칼럼 (37)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 영적전쟁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제가 교도소에 도착하자마자 방문하는 곳은 여자 재소자들이 있는 감방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대 여성인 케리라는 재소자는 항상 공손하고 활발하며 앞장서서 다른 재소자들을 잘 돕는 사람입니다. 그날 아침도 케리가 저를 보고는 감방 안에서 손을 흔들며 기쁜 얼굴로 맞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회 참석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적는데 케리가 자신의 이름을 '케리 그리고 사탄'이라고 적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처음이라 좀 이상했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일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지 않기 위해 그냥 기도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 케리를 따로 만나서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 모임이 끝난 후, 준비해간 여러 가지 기도용지를 나누어 주는데 케리가 그때부터 기도용지를 가르치면서 "저것은 저주, 저것도 저주, 저주야!" 하면서 전에 전혀 하지 않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자기가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에 공손하며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던 그 케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귀가 그녀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예수? 내가 예수를 죽였어" 라고 대답하며 저와 말을 많이 해야 한다면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1999년부터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재소자들에게 인성을 높이거나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케리가 계속 자신이 사탄이라고 하자, 그녀의 말을 먼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조용히 해!"라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케리는 그때서야 정신이 돌아온 듯 목사가 어떻게 자기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쯤, 벌써 재소자들에게 점심식사가 나왔고 교도관들은 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저는 그곳을 떠났지만 케리가 그렇게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케리가 여러 차례 기도모임에 참석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다른 신들도 함께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경이 아닌 다양한 신들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기도모임에 참석하는 이유도 기도해서 손해 볼 것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그녀를 도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참석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께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자기 여러 종류의 다양한 신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호기심과 흥미가 많은 그녀는 예수님만 신이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마귀들에게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영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며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녀에게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고 다시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케리는 예수님이 그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함과 영적인 공격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읽으며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 후 케리는 시간이 가면서 영적인 고통이 점점 덜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케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쯤에 다시 다른 신들에 관한 책들에 관심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책들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마귀들에게 영적인 공격의 문을 여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경고했지만 그녀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영적인 호기심으로 인해 어두운 세계에 관심을 가진 것을 사탄은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저에게 영적인 도전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그 기도 모임에서 본 것입니다. 어두움의 세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어떠한 고통에 빠지게 하는지를 모르는 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세계

에 자신의 마음 문을 엽니다.

케리가 그 중에 한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녀는 마귀를 물리치고 고통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도울 수 있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마귀를 쫓아내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케리 자신이 다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녀가 마귀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 는 것과 같으므로 다른 사람이 케리와 같이 일하는 마귀를 쫓아낸다 해도 마귀는 다시 그녀에게 돌아옵니다. 마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마귀의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죄에서 떠날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날 케리를 복도에서 만났을 때, 범정으로 가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살벌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악령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섬뜩한 느낌이 들었고 제가 전혀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예수님을 찾고 믿음이 성장할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녀는 석방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더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는 것이 안타까우나 그녀가 하나님만 믿는 믿음만 가지면 언제든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께 그녀를 마귀의 악한 권세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탄이 케리를 통해서 기도 모임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을 볼 때 사탄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싫어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기도를 인도할 때 바로 제 옆에서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녀에게 역사는 마귀가 기도를 방해하려고 기도용지를 '저주'라고 한 것입니다. 기도용지는 재소자들이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무장인 것을 아는 악령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 기도 모임이 있기 바로 전날 케리가 다른 여 재소자에게 화를 내고

마귀를 때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케리는 항상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인데 마귀가 그녀에게 분노를 내게 충동질하고 전에는 전혀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케리가 저에게 대적하는 말을 할 때 다른 여 재소자가 케리의 두 팔을 붙잡고 있었다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케리가 저에게 육체적인 공격을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녀는 케리의 팔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사람들이 악한 말 뿐만 아니라 악한 행동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케리는 석방이 된 얼마 후에 그녀의 팔을 붙잡고 있었던 여 재소자에게 잘 지내고 있다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케리의 영적인 상태를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녀가 주님 안에서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교도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도소 밖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하지 못하는 죄성으로 인해 분노 속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잘못된 생각과 분노로 인해 남을 해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영적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용서하고 평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면 분노를 터뜨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케리와 같이 사탄이나 또 다신에 관심이 있어서 마귀에게 영감을 받아 분노에 가득 차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또 마귀에게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혼동 속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 마귀를 물리칠 수 있으며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저는 사탄숭배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케리도 언젠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가 평화의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는 간증을 들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도소에는 케리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변화프로젝트 교도소 문서선교는 재소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문서로 전하는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이 계속 문서를 통해 씨가 뿌려져서 케리 같이 마귀에게 속아서 어둠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을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 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yonghui.mcdonald@gmail.com

## 제13회 여성 지도자세미나 총131명 참석 캄보디아국제신학교 여성지도자연수원 주최

캄보디아국제신학교(ITCS) 부설 여성지도자연수원이 주최한 제 13회 여성 지도자 세미나가 지난달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됐다.

강사는 학장 김현 목사와 오금옥 여성연구원 원장, 한주식 목사, 조슈아 허 목사, 티모시 S 목사, 헬렌김 사모 등 총 8명이 맡았다.

이번 지도자 세미나에는 11개 지역의 61개 교회에서 총 131명이 참석했다.

11개 지역은 슈바이 레임(22교회, 36명), 프레이 벵(2교회, 6명), 바탐방(3교회, 4명), 칸달(2교회, 3명), 캄퐁 차낭(25교회, 46명), 프리아 비히어(4교회, 13명), 크라티에(2교회, 9명), 티봉 카뎀(1교회, 8명), 반테이 민초이(3교회, 4명), 폴사트(1교회, 2명), 시엠티(2교회, 2명).

(기사제공: 여성지도자연수원)



(8면에서 계속)

광고 출연을 위해 바른 발모제 덕분에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하여 미인대회 출신의 애인까지 생겼다. 그 후 '가발 사건 2주년 기념대회'에서 가발을 쓰고 링에 올랐다가 그를 후원하는 발모제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아파트를 선물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다. 대머리 복서 고구치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위기를 위기로 끝내지 말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인생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한다. 리더어, 인생의 어려움과 실패를 극복하고 밤잠을 설치며 인생 최고의 날을 준비하라. sondongwon@gmail.com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	\$100	유럽 .....	\$190
	캐나다 .....	\$110	남미 .....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Fax	( ) ( )
배달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한인소망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현 담임목사님께서 올해로 27년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시기에 새 후임 목사님을 찾습니다

#### 지/원/자/격

- 나이제한: 40~50세
- 개혁 보수 신학 대학원(M.Div)을 마친 분
-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지하신 분
- 5년 이상 목회 경력과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하신 분

#### 제/출/서/류

- 이력서(가족사진 첨부)
- 졸업 증명서(대학교와 M.Div) 및 목사 안수 증명서
- 자기 소개서(신앙고백, 목회 경험, 목회비전, 성장배경, 가족소개서)
- 설교(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최근 것 CD나 동영상)
- 추천서 두분의 목사님이 추천하시고 추천하신 목사님이 직접 우송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분은 개별통지합니다.
- 제출서류 서류 마감일: 2018년 5월 6일(5월 6일자 우편소인까지 유효)

#### 제출처 주소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 청빙위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교회: www.hopestl.org  
Tel: (636) 751-6027 이창진 장로  
Email: koreanhopestl@gmail.com

**교회비전**

위로와 심을 얻는 교회  
성령의 새 힘을 공급받는 교회  
영혼 구원의 사랑을 품은 교회  
추수하는 교회



선교 펴기

아르헨티나

할렐루야! 목사님과 믿음의 동역자님! 그동안 안녕하신지요?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목사님과 믿음의 동역자님들의 가정과 사역과 교회위에 늘 풍성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와 사랑으로 선교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7년도에는 저희들에게도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차량을 집 앞에서 권총강도에게 차량을 빼앗기고, 아가페교회 개척예배를 드릴 때에 5인조 도둑이 대문과 철장문을 뜯고서 집안의 모든 물건을 싹쓸이 해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현실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높은 물가 인상, 높은 실업률, 치안부재, 정치적인 혼란 등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사역 기아대책에서 후원하는 아동사역은 매주 토요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아동들의 환경을 매우 열악합니다. 부모님의 이혼, 부모님의 부재, 가정경제의 어려움, 양부의 폭행, 마약과 아동들의 성폭행 등으로 인해서 많은 아동들의 마음이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동사역이 이제 5년째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콜리계 아동들이 이제는 제법 커서 아동사역의 보조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가페 교회 개척 사역 지난 2017년 8월 27일에 부웨노스 뽀빠자 지역에 6번째 지교회 아가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가페 목회자 지도자 사역

아가페 목회자 지도자 사역은 매주 부웨노스 근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며 포루모사 위치에서 사역은 인텐시브로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을 섬기고 있습니다. 목회자, 지도자들의 영적성장과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교육하면서 또한 목회자들이 사역하는 교회를 방문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바른 신앙 훈련과 양육을 통하여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섬김과 헌신을 강조하면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함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교회 개척 사역

지난 2017년 8월 27일에 부웨노스 뽀빠자 지역에 6번째 지교회 아가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교회는 지난 2년 동안 저에게 양육과 훈련을 받은 아리엘 형제가 본인이 일하는 화물트럭 회사의 왈테 사장에게 부탁하여서 매주 일요일 창고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포루모사 지역에서 저희가 아가페 목회자, 지도자 사역의 소문을 듣고 참석

하여 은혜 받고 마약중독에서 치유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아리엘 형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 부웨노스에 내려오게 되었고 저희의 예배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저의 큰 아들 인성이 이번에 브웨노스 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합격하였습니다. 올해 4월이나 5월에 정부에서 치과 의사 면허를 받게 됩니다. 아르헨티나는 학교 졸업하기가 매우 힘들습니다.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목사님과 믿음의 동역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아르헨티나에서 장영호 백미영 선교사 드림

이메일: changpastor214@gmail.com

기도제목

- 1. 선교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2. 각 사역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3. 포루모사 5개의 지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4. 6번째 개척한 아가페 교회와 사역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도록
5.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6. 자녀들(인성, 광성)을 위해서

삼자애국교회 아니면 이웃...중 선교 비상

종교사무조례 통과로 본 중국 선교

중국 당국이 이달부터 종교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현지 선교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선교 강국으로 꼽히는 한국교회도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중국 정부가 허난(河南)성 시화(西華)현에 있는 기독교 가정교회에 대해 전면 폐쇄를 통보하고 예배를 차단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새 종교관리 조례에 따르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선교자금은 10만 위안(약 17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또 종교단체를 설립하려면 중국 사회단체가 관리하는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이밖에 비종교 단체는 인민들의 종교 교육·회의·활동을 할 수 없고, 대형 집회는 30일 이전에 신고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종교 활동을 할 경우, 10만~3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정교회의 헌금 수입 등은 압수된다.

그간 중국 정부는 기독교 박해에 열을 올렸다. 당장 지난해 1월에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성 제재로 엔지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 32명이 추방됐다.

특히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조례는 탄압의 강도가 더 세다. 대부분이 가정교회 형태로 사역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로서는 직격탄을 맞는 셈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 세계선교회(GMS) 소속 중국 선교사들은 국내 모처에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 중이다. A선교사는 "조례 시행 전부터 주변의 밀고나 사찰로 인해 가정교회가 발각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중국 선교를 지속할지를 따지는 근본적인 논의부터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소속 선교사 2명은 지난달 추방당해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다. 추방당하면 중국의 경우 최소 5년간 재입국이 불허된다. 기성 총회 관계자는 "해외 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장기적 대책 마련은 물론 쫓겨난 선교사들이 국내에 머물 공간 마련과 제3국으로의 파송 등 현실적 대안을 세우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한국세종) 조용중 사무총장은 "지난주 중국에 가서 분위기를 파악한 결과 기독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경계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또 전에는 중국 특유의 '관시(관계) 문화'가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선교활동이 용이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준비정신이 강한 젊은 세대가 대거 등장하면서 조세 위반 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우선 현지 선교사들은 모임이나 과시적인 집회 등을 피해야 한다"며 "국내 교회와 단체도 단기선교팀 파송을 자제하고 국내에서도 중국 관련 선교대회를 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션라이프)

해외 파송 선교사 58% "노후 대책 없다"

38%는 국민연금 가입도 안돼...절반 "은퇴 후 한국서 살고 싶다"

해외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 58%는 은퇴 이후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해외선교는 1990년부터 본격화됐다. 이때 파송된 선교사들이 점차 은퇴하면서 노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인세계선교사지원재단(사무총장 김인선 장로)은 동서선교연구원개발 한국본부(대표 이대하 선교사)와 선교사 34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2%가 '은퇴 이후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설문 대상 선교사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지의 54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전체 응답자의 74.0%가 50대 이상, 75.0%는 사역 기간이 11년 넘는 중견 선교사였다. 설문은 모바일로 진행됐다.

은퇴 이후 의료에 대한 준비도 미흡했다. 응답자의 81.5%가 국민건강보험만 가입돼 있다고 했으며 18.5%는 이조차 가입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선교사의 62.5%가 주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17.3%는 '자기 소유의 집이 있다'고 했고, 16.1%는 '은퇴 이후에 부모, 자녀 등 가족의 집에 살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은퇴 이후 보내고 싶은 장소를 묻는 질문엔 가장 많은 응답자가 '한국에서 살고 싶다(49.3%)'고 했고 이어 '선교지에서 계속 살겠다(31.7%)'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살겠다(13.2%)' 순으로 답했다.

선교사들은 은퇴 이후 노후 준비는 선교사 자신이 해야 한다(49.6%)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최우선적으로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원해 주길 바란다는 응답자도 32.8%에 달했다.

김인선 한인세계선교사지원재단 사무총장은 "선교사들의 노후 문제를 선교사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선교사, 선교단체, 한국교회가 머리를 맞대 대책을 세우고 우선순위에 따라 실제적인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Large advertisement fo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Churches reaching the world) featuring '기타지역 교회' (Churches in other areas) and a grid of church listings with photos of pastors and service times.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49)

8.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 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 교육 이야기 (10) (Biblical Integration and Education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이 이야기는 한인 교회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교육"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 의미에서의 "성경적 통합교육"의 정의, 목표 및 근간적 의미, 그리고 그 확장적 개념을 토대로, 한인 교회교육에서 실질적으로 "성경적 통합교육"을 실천하는 이슈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앞선 카테고리들을 살펴보고서 부분적으로 간간히 언급하였던 "교육자"에 대한 답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교육에서 "교육자"의 범위는 개 교회의 조직 양상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단 다음세대의 "교육부"라는 단위 내 속하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 장로, 교육목사, 각 부서 목회자들, 그리고 교사들이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앞의 두 부류의 사람들은 교육의 행정적인 부분을 주로 담당하고, 교사들은 주로 실질적인 교육을 담당하며, 부

절되어 버리는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 교회들의 교육이 성경적 통합교육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애쓰고, 가장 많이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슈는 바로 "성경을 성경적으로 가르칠 교사들"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이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성경을 성경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우리 교회교육 안에 충분히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실제로 우리 다음세대들을 성경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사들을 세우고 훈련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과연 성경을 성경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교사들은 어떠한 자질과 역량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 통합교육을 실행하려면, 교사에게 어떠한 자질 혹은 역량이 요구되는가

가 송구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끼고 하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일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교사의 사명이며, 다음세대에 대한 마음과 책임을 위하하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신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더욱 열렬하게 성숙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교사라는 것인 것입니다. 이에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모든 교사들이 지치지 않고 달려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사의 자질에 대한 논의의 중심은 원론적으로 볼 때, 모든 자질을 완벽하게 갖춘 완성형 교사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지속적인 성숙과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추구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다섯 가지 자질 혹은 역량을

- 교사의 자질: ①소명 ②신앙과 영성 ③기독교적 세계관과 성경적 지식 ④교육학적 기술 ⑤삶에서의 도덕적 신앙적 모범 전 교회적인 교사 지원과 학생과 함께 가는 교사의 지속적 성장 필요

서 목회자들은 양자 모두를 주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의 교육자에 관한 답은 우선 실질적 교육의 실행자들인 교사들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교사에 대한 논의의 마지막에, 성경적 통합교육에 있어서의 교육부 장로 혹은 교육목사의 바람직한 상에 대하여 조금 이야기를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통합교육을 교회교육에 접목하는데 있어서, 특히 "성경을 성경적으로" 가르치고자 할 때 우리 교회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살펴보면 있어서, 단언컨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교사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실상 모든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아이들과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며 교육의 행위를 담당하는 일선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경적 통합교육을 적용한 교회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목표 및 목적, 그리고 정책이 훌륭하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좋은 교재를 제공할 수 있고, 바람직한 시설과 교육기자재가 갖추어져 있다고 한들, 교육을 실행하는 교사에게 바람직한 교육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이슈가 있다면, 그 좋은 제반 인프라에 맞추어 교육이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발생할 수 없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마치 정상을 향해가는 기나 긴 계단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계단이 단

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으로 많은 것들이 논의될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자질 혹은 역량은 크게 5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소명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과 영성입니다. 셋째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성경적 지식입니다. 넷째는 교육학적 기술입니다. 마지막은 삶에서의 도덕적 신앙적 모범입니다. 교사가 적어도 이 다섯 부분에 있어서 확고하게 서 있을 때에야, 성경적 통합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그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일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전 교회적으로 모든 교사들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 수고를 알아드리고, 늘 위로하며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교회도 "감사하게도 우리는 교사의 수가 넉넉합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를 만나본 적이 없을 만큼, 사실 교회마다 늘 교사수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게다가 사례를 드리고 교사들을 모시지 않는 우리 한인교회 풍토아래 모두가 자원하여 교사들에게 무엇인가를 또 요구하며, 자질이 나 역량이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

모두 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교사는 사실 만나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사의 자질 혹은 역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더욱 세련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 교사 스스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삶과 신앙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혹은 참석할 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맞이하고자, 스스로를 다그쳐 깨우고 나와, 생전 하지 못했던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보다 적극적인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면, 혼자서는 성경을 꾸준히 읽거나 연구하는 일이 힘들었지만, 매주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정하게 성경을 읽고 공부하게 되면서, 성경적 지식이 성장하여, 말씀을 통한 보다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의 자질들이 얼핏 교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려워 보이지만, 이들을 키우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그만큼 교사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자질에 대해서는 다음 이야기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구원할 자가 없었고!(삼하22:42-43)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평생을 살면서 체험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수많은 장애물을 다 제거해주시고 수많은 실족할 위험에서 건져주시며 실족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수많은 전쟁을 치루면서도 끝까지 싸울 힘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위험하다 싶으면 적군이 뒤로 돌아있어서 오히려 한 방에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

리고... 그래서 다윗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대적들을 철저히 제거할 진멸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도, 마지막에 가서는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티끌같이 진흙같이 부서트리시고 밟아 해쳐버리십니다.

화 부르짖어도 대답치 아니하셨나이다(삼하22:42-43)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대적들을 철저히 진멸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적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공격하다가 죽게 되면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무리들을 한순간에 손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오면 언제 어디서든지 구원을 베풀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지 부르짖으면 그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일단 구출해놓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단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수들은 부르짖어도 대답치 않으십니다. 원수들은 아주 완전히 진멸하십니다.

수 건지시고 보존하시(삼하22:44)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동족들과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형제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통일 국가의 왕이 돼 다스리기 전에 동족들과 계속해서 원수가 될만한 일이 많았습니다. 사울 왕의 장군 아브넬이 이삭보셋을 얻고 막강한 권력을 과시하는 중에 다윗왕에게 화친 조약을 맺으러 왔다가 다윗의 신복 요압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겸손하고 사울왕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 후손들도 끝까지 잘 돌봐줌으로써 동족들과의 모든 다툼을 잘 해결하고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베냐민지파 시므이와 세바가 저주하고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족과의 다툼을 피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목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삼하22:44)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 즉 "세상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머리"는 모든 것을 지도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만 그냥 잘되고 잘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책임지는

고 세상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세상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해 되리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지체로 으뜸이 돼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지도하고 세상을 책임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금 저희가 내 중생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삼하22:45-46)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굴복하고 순순히 따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사람들이 다윗의 명성만 듣고도 다 항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방사람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순복하고 스스로 떨며 항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은 잃어버린 영

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하시려는 지상명령을 잘 감당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써 세상에 나갈 때 우리의 명성을 듣고 순복하고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순복시키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토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찌로다(삼하22:47)

이제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간증하던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제까지 자신이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 수 있었고 큰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 중에서 으뜸이 되게 하신 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나의 명성을 듣고 곧 순복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생존하시니"라는 히브리어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감탄에 감탄을 더하며 환호의 소리를 지르는 장면입니다. 생사를 오가는 위험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든든한 바위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십니다. 할렐루야!

Worldwide Church Directory (해외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Kumran, Daejeon, Roman, etc.

세계기독교언론인협회 독후감 공모전-장려상(3)

임보라 사모  
(LA 동양선교교회, 풀러신학교 재학)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를 읽고

시작은 알팍한 호기심과 간사한 동정심이었다. 믿음 좋은 젊은이가 암에 걸렸더니 얼마나 억울하고 고 통스러울까. 그는 이제 하나님을 향 하여 어떻게 반응할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좋은 학벌과 별이도 내려 왔다는데... 어쩌면 그토록 모진 질병과 재난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음 에 은근히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그녀의 안쓰러운 상황에 혀를 차면서 무의식적 우울감에 도취코자한 치졸한 욕망이 내 가슴 한 켠에 있었는지 도 모르겠다. 그러나 빠른 호흡으로 그녀의 간증과 설교를 읽어 내려가 며 어느새 그녀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녀가 암에 걸린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암에 걸렸음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잠겨 확신에 찬 음성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부러웠다. 회사에 결박된 죄인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매인 것 말고는 자신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지 상의 권력자 앞에서 당대히 선언한 바울처럼 한 치의 망설임도, 물러섬도 없이 복음과 믿음의 자부심을 포 호하는 그 인생이 가슴 벅차도록 아 름답고 위연하게 다가왔다.

삶의 가치는 길이가 아닌 깊이로, 권력이 아닌 영향력으로 새겨지는 것인 사실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 지만 실제로 그녀가 짧게 마친 생애 에서 던진 굵직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세상의 어떤 장수한 현자의 목소 리보다도 날카로운 울림을 남길 줄 은 차마 예상치 못했다. 들을 한 번,

날숨 한 번 내쉬기 힘든 몸으로도 초 마다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묵상 하는 그녀의 고백 앞에 술한 세월 동 안 무감각하게 쏟아낸 내 수억 개의 호흡이 부끄러워진다.

어쩌면 삶의 진정한 뜻을 온전히 살아낸 시간만 계수되는 것이 한 사 람의 수명을 세는 올바른 척도인지 도 모르겠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꼭 찬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그녀가 그 누구보다 장수의 복을 누린 것은 아닐까? 그녀는 우리보다 먼저 세상 을 떠났지만 이곳에서 과연 오래 산 자가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이다. 그녀가 피와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들은, 백세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그 기한을 다 채우고 죽는 다 해도 이 땅에서 더욱 오래 자 라나고, 열매 맺고, 또 다른 씨앗을 뿌리며 그 생명을 이어갈 것이기 때 문이다.

2016년 3월 4일, 그녀는 주님의 품 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결코 충분하게 다 가오는 것은 아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야 비로소 의미가 있 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날마다 나 름의 방식대로 고민하고 노력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의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죽는 것은 사는 것만큼이나 자명한 것인데 말이다.

‘순간’은 사라지고 ‘영생’은 아득한, 그 사이의 시공간을 살아가는 우리

들이 더 이상 핵심을 놓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그녀는 자신의 죽음과 고통을 담보로 경종을 울려준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과 맺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반드시 찾아오지만 언제 도착할지 임할지 알 수 없는 죽음의 방면에 어쩔 줄 몰라 하지 않도록, 오히려 더 큰 소 망과 기대로 그것이 함부로 주는 위험과 두려움마저도 담대하고 넉넉하게 포용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마지 막 한 마리의 양까지도 더 늦기 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험한 산길을 다시 오르는 절절한 목자의 심정으로...

“나는 빛의 바다에서 홀로 섬이 되 었다.” 한 소설 속 끔찍한 살인마의 아들이 섬 없이 터져대는 카메라의 섬광 속에서 느낀 세간의 저주를 받 으며 느낀 이 짙막한 한 줄의 감정이, 마치 하나님을 모른 채 ‘죽음, 그 끝없는 암흑의 순간’을 오롯이 홀로 맞이해야 하는 자의 순간을 묘사하 는 것만 같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처럼 고아와 같이 비참하게 이 땅에 서의 삶을 마감하지 않도록 십자가 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외침이, 작은 예수 된 그녀의 십자가 위에서 메아리친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그녀의 암 덩어리들과 짐승처럼 울부짖어야 하 는 고통의 밤을 안타깝게 바라보았 는데, 오히려 그녀는 주님의 시선으 로 침상에 움짱달짝 못하고 붙들려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바라본다.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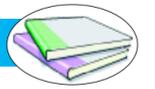
신의 ‘목숨’은 미련 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지막 순간까지 공을 들이는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본다. 그녀는 진정 갈라지지 않는 바다를 앞에 놓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손을 뻗어 그분과 함께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었다.

그녀가 삶의 순간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은 낯설도록 새롭고 위 대하게 다가온다. 세월호 사건, 멕시코 지진, 중동 테러 등 감당하기 어려 운 비극과 고통을 매일 같이 마주하 는 세상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외면 하게 된다. 선하고 전능다면 왜 우리 를 이 끔찍한 고난으로부터 방치하 는가. 그러나 가장 치열한 고난의 중심부에서 그녀가 증거하는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더욱 아파하시고, 더욱 간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미 그보다 더 큰 고난과 수치와 외로움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고통의 끝에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을 약속하 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원망하 는 것이 아니라, 앞서 증거 된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붙잡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실로 그렇게 함으로 ‘끔찍한 고통마저 지극한 행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맞보았다.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믿음으로 새 소망을 품고, 그 소망으로 다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천국의 초대장을 내민다.

이제는 더 이상 고난과 죽음에 굴 복하는 나약한 신앙인으로 살지 않으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사랑으로 삶의 모든 시련과 두려움을 잠식하고 빛나는 얼굴로 살아가리라. 내 안에 그리스도도 사심으로 이 땅이 나 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마땅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리라. 두 고두고 다시 열 책장을 덮으며 고요 히, 그러나 묵직하게 다짐해본다.

책 소개



“성경에서 심리학을 읽다”

저자 최승목 목사

팜스프링 한인교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승목 목사가 성경에서 찾아낸 심리학 법칙들을 모아 ‘성경에서 심리학을 읽다’를 출간했다.



저자 최 목사는 “심리학 용어와 경영학 용어, 물리학 이론 등을 성경에 접목했다” 며 본서를 통해 “파스 칼의 광세와 같이 여러 단편들이 모여서 하나의 재미있는 상식과 성경 속의 우주의 원리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에 대해 나누기를 소망 한다”고 말한다.

그는 서문을 통해 “흥미삼아 한두 권 읽기 시작 한 자가개발서를 나중에는 나오는 대로 거의 다

다양한 최신 학문들을 성경의 원리로 풀어

섭렵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근거를 두는 전문가들의 서적까지 찾아 있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주 로 성경만 읽고 자란 저는 그 내용들이 대부분 성경에 이미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고 이미 수 천년전 말 한 그 이야기를 마치 새롭게 발견한 것인 양 거대한 원리처럼 말하는 것이 성경을 인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평생 성경을 읽은 성직자로서, 학자로서 이에 대해 비판이 아닌 이들이 말한 원리보다 훨씬 앞서 이야기했던 성경의 원리를 소개하기 원한다”고 출간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본서는 총 12파트로 나뉘어 ‘확증편향과 축복’, ‘오병이여와 티핑 포인트’, ‘신성과 원형’, ‘수면의 신비’, ‘상처받으시는 하나님’ 등 116개의 글이 수록돼 있다.

나성영락교회 원로 박희민 목사는 “현대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학설이나 주장에 앞서 성경에 기록된 교훈과 이야기들을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 그리고 깊은 영성을 통해 조망해 깊은 감동과 공감, 심오한 진리와 교훈에 접하고 경이롭게 해주는 글”이라고 치하하며 일독을 권했다.

저자 최승목 목사는 감신대를 졸업하고 광림교회에서 사역했으며 2004년 도미, 미국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D. Min.)에서 공부했다. 현재 미국 서부 팜스프링스에서 한인교 백인, 멕시코를 위한 목회를 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주의 여러 기업체 워크숍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doctorsmchoi@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레고 선교사역에 동참하세요!

선미니스트리 올여름 단기선교팀 파송

“선교를 돈으로만 한다고 생각하 시는지요? 아닙니다. 용도가치가 없어진 물건들이 쓰레기통으로 가지만 하나 닙의 선교를 위해서는 작은 것들도 위대 한 재탄생이 됩니다.”

선미니스트리 대표 김정환 선교사는 최근 쓰지 않는 레고(어린이 조립장난 감)를 이용한 선교사역을 실시했다. 아 이들이 성장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

는 레고는 쓰레기가 아닌 가난하고 어 려운 선교지의 어린이들을 위한 최고 의 선교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된다.

김 선교사는 “어린이들 사역은 그 나 라의 미래를 책임진다”며 “레고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주님을 전해주고 창의력 을 개발해주고 성경을 배우게 해주는 사역을 개발했다”고 밝히고 집안 어디 엔가 방치되어 있는 레고를 모아 선교

지에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 다.

그는 수집된 레고를 아프리카나 아 시아 등 어려운 나라의 어린이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보내드려 아이들에게 성경의 이야기와 복음을 들려주는 도 구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집에 쓰지 않는 레고들을 모아서 보내주면 감사 하겠다고 말했다.

레고를 수집해 우편으로 보낼 주소 는 SON Ministries(13921 Artesia Blvd, Cerritos, CA 90703)이며 이 사역 을 재정으로 선교후원자가 되기 원하 시는 분들은 이 주소로 체크를 보내면 된다.

Pay to order는 SON Ministries로 하고 메모에 “레고사역”이라고 적으면 된다. 현금할 때 IRS 세금공제 받게 된다.

한편 선미니스트리는 올여름에 레고 단기선교팀도 모집한다. 65세에 은퇴 했지만 건강하고 아직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레고 단기선교에 참여 할 수 있다.

올해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말라 위에 단기선교팀을 파송하게 된다.

▲문의: sonministries@gmail.com 김정환 선교사 (기사제공: 레고미니스트리)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기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룡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